朝鮮日報 夕刊 一日(月)
本紙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建國五周年에際하야 帝位繼承法公布
康德皇帝를滿洲國의帝祖로 男系子孫이永世繼承

【新京一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四海萬民歡喜慶祝裡에 現康德皇帝가 康德元年三月一日 御登極하압시사 國家統治의 尊位繼承의 典則을定하고 不易의大法條章起草를하고저 準備를進行하야 康德二年一月九日 當時宮內府大臣沈瑞麟氏를 委員長으로한 皇室大典委員會를 組織하고 滿二個年間 各條章에對하야 愼重히 研究한結果 去二月廿日에 이르러成案을어덧슴으로 廿六日 國務院會議를열고 張國務總理以下各國務大臣關係者出席하야 大典委員會가提出한 帝位繼承法審議에 對하야 異議업시 可決하엿는데 다음參議府의諮詢을經由하게되야 二十七日午前十時半 宮內府에서 康德皇帝陛下의御親臨을 仰하야 御前會議를열고 御裁可를어덧스므로 建國五周年을마지한 三月一日公布하엿다

滿洲國帝位繼承法은 日本帝國皇室典範同樣皇位繼承의 大儀 國家의大經儀으로서 樹立되어 그第一條에示함과가티 康德皇帝를 滿洲國의帝祖로하고 男系子孫이 永世滿洲帝國의帝位를 繼承함을 根本眼目으로하엿다 第二條以下 그子孫間에 잇서서 大統繼承의順位를明白히하고 滿洲帝國의 帝位가 無窮하게傳하는同時에 國運이永遠히隆昌함을 記한것인데 特히感激할것은 繼承法에 宣함과가티 滿洲國皇帝는 日本天皇陛下의 御保佑를 바드시사 日滿一德一身의 美를發揚하고 日滿不可分離의 關係를 永久히 堅固히한點 東亞安定의基礎法典이라고도 稱할수잇스므로 滿洲國民草는 勿論日本國民으로서도 意義기픈 大法典이다

(寫眞은 康德皇帝)

帝位繼承法全文

【新京一日發同盟】

帝位繼承法

第一條 滿洲帝國帝位는 康德皇帝의 男系子孫인男子 永世이를繼承함

第二條 帝位는 帝長子에 傳함

第三條 帝長子不在時는 帝長孫에 傳함 帝長子及其子孫이 모도잇지아니할때는 帝次子及 其子孫에 傳함 以下다이에依함

第四條 帝子孫의 帝位를 繼承함은 嫡出을 먼저함 帝庶子孫의 帝位를 繼承함은 帝嫡子孫이모도 잇지아니할때에 限함

第五條 帝子孫모도잇지아니할때는 帝兄弟及 其子孫에傳함

第六條 帝兄弟及其子孫이 모도잇지아니할때는 帝伯叔父及其子孫에傳함

第七條 帝伯叔父及其子孫이모도잇지아니할때는 最近親者及其子孫에傳함

第八條 帝兄弟以上은 同等內에서 嫡을先히하고 庶를後로하며 長을먼저하고 幼를後로함

第九條 帝嗣精神或은 身體不治의重患이잇고 又는重大한事故가잇슬時는 參議府에諮詢하고 前數條에依하야 繼承의順序를交換할수잇슴

第十條 帝位繼承의順位는 모도實系에依함

附則

本法은 公布日부터此를施行함

帝位繼承法制定 勅語

【新京一日發同盟】我滿洲國은 日本帝國의 仗義援助에 賴하야 斯邦基를 奠하다 是로서 朕 登極以來 仰하야 資命의基하는바를體하고 俯하야 國脈의 繫하는바를 念하야 모든守國의 遠圖 經邦의 長策 모다日本帝國과 協力同心 써 益益 兩國不可分離의 關係를敦히하고 一德一心의 眞義를 發揚하야 夙夜勤求 敢히 조곰도 懈함이업다 今玆에 帝位繼承法을 制定하야 靈體付託의 重함에잇서서 그法典을 定하야 諸를久遠히 示하다 大寶儼然 建中易치안홈이 實로 日本天皇陛下의 保佑에 賴한다 夫 皇建極이잇서 惟皇極으로되니 天道를 裁成하며 地宜를輔相하야 民의 父母가되고 仁으로써 其政을 行하며 義로써 其法을 制하면 則 重熙累治 殿懿의下에 永久히 君民一體의美를 懋히하야 正히 天地와 其德을 合하며 日月과 其明을 合할것이다 무릇 朕의 繼統의 子孫及 臣民인者 기퍼 繩興의 基其孫與하는바와 受命의 運其孫을 啓하는바에鑒하야 모다 朕의 萬方을 撫綏하고 宵旰不倦하는 마음으로써 心으로하고 聿修惟愼 欽戴不替하면 則 垂統萬年 반듯이 無疆의 休를享하고 길長治의 福을保하리라

御名御璽

康德四年三月一日

國務總理大臣

宮內府大臣

張總理謹話要旨

【新京一日發同盟】今日建國第五周年의 記念日에 當하야 四海歡喜萬民慶祝中에 帝位繼承法이 公布되어 我國礎가 鞏固를 加하게된것은 感激不堪이다

惟 國家統治의 尊位繼承의大法으로 條章으로써 不易의 天則을 定한나라는 東洋에는 大日本帝國이 잇슬뿐이엿스나 이제滿洲國에서 帝位繼承의 大典을 制定한것은

君臣의 大義、國家의 大經이 確立된것은 意義기픈일이다

今回制定된 帝位繼承法은 第一條에 示암과가티 今上皇帝陛下를 帝祖로 그御子孫이永世滿洲帝國帝位를 御繼承하실것을根本眼目으로하고 第二條以下 御子孫間의 大統繼承의 順位를明白히하야 帝位의無窮傳承과同時에 國運의 永遠隆盛을 期할것이다

關東軍司令官談

今日滿洲建國第五周年記念日을마지하고 目前에 躍進에 躍進을 繼續하고잇는 盟邦의姿를 본것은 진실로 同慶에 不堪하며 滿洲國帝室을 비롯하야 忠良한三千萬民衆에 對하야 深厚한 祝意를 表하는바이다 滿洲國은大日本帝國과 一體不可分關係에잇서 諸般障碍를 打破하면서 理想國家建設 亞細亞復興、東洋平和確立等에 邁進하지아니하면아니되는 天命을 課한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此大使命을 貫徹함에는더욱一層、不屈不撓의努力을 要할것이라고생각한다 玆에慶賀할建國五周年記念日을 마지하고 滿洲國官民이 더욱 勇氣를鼓舞하야 理想國家의 完成과 其重大使命達成에 邁進하기를切望하는바이다

總裁의指名으로 四名代行委員決定
鳩山、前田、島田、中島四氏指名
議員總會서一致可決

【東京電話同盟】政友會에서는總裁代行機關設置에 對하야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總務會를열고 院內外總務幹事長 出席下에 安藤幹事長으로부터 『囊者 總務會가 三名의代行機關을 設置하고 選任은 無記名單記互選에 依하기로 決定하엿는데 그後열린 顧問會議에서는 될수잇는대로 投票를 省略하고 互選의主旨를徹底히하자는 旨의 要望이 잇섯다 그런데 그後 黨情을觀察하매 首腦部中 前田、中島兩氏는圓滿解決을 期하기爲하야辭退申請이잇섯고 또 黨員方面에서도 平和第一機運이 醸成되여 互選主張은 거의 絕望되게되엿다』는旨의報告를行하고協議한結果 總務會로서는前日決定한 善後措置案을撤回하고 다시黨內事情을充分參酌하야 此旨를鈴木總裁에報告하고 代行委員指名을 仰하기로 意見이一致되야 結局代行委員數및 人選을 總裁指名에 委任하게되엿다 如斯히하야 總務會에 繼續하야 同十一時二十分부터 幹部會에 들어가 安藤幹事長으로부터總務會에서行한것과가튼 報告가잇슨後 東顧問의質問에應하야 前記總務會決定을開陳함에 對하야 川村顧問이 그他는 全部總裁指名의 解決案을 承諾하기로 決하엿스며 最後로小久保 島田兩氏로부터 代行委員을總裁指名에依하야 決定함에 對하야는 一人의反對도업도록 黨一致의態度로 臨할旨의 希望이잇고 午後零時半 幹部會를 終了하엿다 午後一時부터 議員總會를 開하고 委員의 員數人選을 總裁에 一任하기로 滿場一致決定하엿스므로 議員總會는 一旦休憩하고 安藤幹事長은 鈴木總裁를 九段私邸에 訪問後 그指名에依하야 鳩山一郞、前田米藏、島田俊雄、中島知久平等四氏를 代行委員에推薦하기로되어 再開議員總會席上에報告하고 滿場一致로 이를可決하엿다

(寫眞은鳩山、前田、島田、中島諸氏)

代行機關의將來
今後事務的衝突은別無할것이나
政友會內訌은深化?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 鈴木總裁引退問題를 中心으로한 騷動은 半月을 亘하야 擧黨的으로 陳痛한나머지 겨우二十八日 議員總會에서 總裁引退를 事實上承認하고 그善後措置로 暫定的으로 代行委員四名을 總裁指名에 依하야 鳩山一郞、前田米藏、島田俊雄、中島知久平諸氏가 그任에 就하야 今後이四名의合議制로서 總裁事務를 代行하기로 決定하고 一段落을 告하게되엿는데 今後政友會는果然鈴木總裁가 引退에臨하야 全黨員에 남긴『一致結束 傳統的精神에 돌어갈수 잇슬것인지 또 鳩山代行委員의 人事와가티『四人이四人이 아니오 四人一體로되어 갈수잇슬지 今次 黨內抗爭은 너무나 深刻猛烈하엿든感情 利害衝突 抗爭그것보다도 革新이냐 現狀維持이냐 軍民一致의 議會政治이냐 自由主義的 政黨政治이냐의 이데오로기ー의 相違엿섯다 이根本이 解決되지안는限 各勢力代表者 四名의代行委員을 推擧하엿다고 即時 黨內의 紛擾禍根은 除外되엿다고는 말할수업스며 全然 一時的 彌縫策이라고볼밧게 업다 더욱 後任總裁問題가 目前에 잇는以上最後의것을 目標로 各勢力의 軋轢은 益益 深刻히되어갈것이다 鳩山一派가 鈴木病總裁의虛位를 擁하고黨內人事를 專斷하며 自由主義的現狀維持이데오로기ー에 依하야 黨의動向을 支配하고저하는態度에對하야 不滿을 抱懷한 革新派와 感情的으로 相容되지 못하는 反鳩山派가總裁의 引退를一擧로解決하야 同時에 鳩山派의勢力을 黨中央으로부터 驅逐하고저 劃策한것이며 具體的으로는 十日의山水樓에 잇서서의 革新派의 發起人및 三緣亭에잇서서의 國政一新會 主催會合에서 비로소事態는 表面化하여온것이다 當時革新派의 協議原案은『速히黨組織을 解體하고全體會議에依하야 革新政策을 樹立하라』는點으로보아 明白히 그運動이 黨의現狀을打破하야 革新氣運을斷行하고저 企圖한것이推察되다 革新派의面貌는 主로黨의 中堅階級으로 現首腦部로부터 恒常不平組로 指目되여잇는分子인데 그背後에는前田、中島의兩巨頭가잇서서 그사이를加藤四郞、船田中、備右衛門氏等이恒常聯携를 保持하며 이에舊床系의一一會가 合流하야 所謂聯合運動에依하야 幹部派에 當하는點에 이運動의 強味가 잇섯다 十五日『아까네』에서열린 幹部會에서도 이勢力을 念慮하고 鈴木總裁의 引退가 不得已하다는 空氣가 大勢를 制하야 主催者山本悌二郞氏로부터 此旨를 鈴木總裁에 進言하고 同夜突然辭表를 表明하게된것이다 너무나 速한 事態變轉에 革新派도 크게狼狽한듯한 模樣이다 爾來總裁引退後의 善後措置問題에關하야 黨內는蜂巢와가티紛糾를거듭하야 鳩山排擊 前田島田의最高委員制、鳩山派의次期總裁即決論、右四氏의 合議制、議會終了까지 現總裁制等 各自派에有利한 運動이 蹶起하야 全然七分八裂의 收拾할수업는 狀態에 陷入하야 結局公選에依하야 代行機關을 設置하게한다는데 大勢가 讓成되고 一面 說、四名說、五名、六名說等記主義意見도 나왓스며 그우에制込運動도 이러나 全然停止할바를알지못하엿다 그런데 마침내 議會中이오 黨內問題에 沒頭하야 議會를 不顧함은 政黨의 信用을더욱 失墜하는것이라는 中正論도 이러나 如何튼지 速히解決하야 議會에 專念하라는空氣를釀成하고 事態解決을 促進하게된것이다 如斯히하야 一時收拾策으로四名代行委員의 感情도 利害도이데오로기ー도아직 根本的으로 何等解消하지아니하엿슴으로 今後黨內事務的些事에對하여는 別로衝突도업슬터이나 黨의重大政策을決할境遇或은 一次政局에大變化를招來하는等의 客觀情勢에逢着하는境遇에는 再次黨內에抗爭을惹起할念慮가 充分잇다하야 今後黨指導精神의 軋轢 次期總裁問題를中心으로한 抗爭을內燃深化할것이라推測된다

貴院本會議

【東京電話同盟】一日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二十五分開會 日程을變更하야

一、產業組合中央金庫法案(政府提出)

一、產業組合自治管理法案(同上)

二件을上程 山崎農相으로부터提案理由의 說明이잇슨後 이에對하야는 質疑업시 十五名特別委員에附託하고

一、肥料取締法中 改正法律案(政府提出)(委員長報告)

을上程 岩倉委員長으로부터 委員會經過및 結果를報告하고 採決하엿는바 原案대로 可決하고

一、酒造組合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委員長報告)

을上程하고 高橋委員長으로부터委員會의 經過및結果를報告하고可決

一、日本無線電信株式會社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委員長報告)

을上程 島津委員長으로부터委員會의經過및結果를報告하고可決

一、特許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委員長報告)

一、商標法中改正法律案(同上)

一、不正競爭防止法中改正法律案(同上)

을一括上程하야 三須委員長으로부터委員會의經過및結果를報告하고可決

一、裁判所構成法中改正法律案(政府提出委員長報告)

一、大正十年法律第百二號中改正法律案(同上)

을一括上程 德川委員長으로부터 委員會의經過및 結果를報告하고 可決하엿다 이리하야 政府가提出한 各法案을 一讀會로 委員長報告대로 可決又는 委員附託한後 日程第一의 國務大臣演說에對한 質疑에들어가

林首相 政綱第一의 立憲政治에關한點은 日本의欽定憲法精神에依하야 外國의憲法과相異하야 日本獨特한 政治를行한다는意味이다

大河內輝耕子(研究)質問하는前提로서 먼저林內閣의 政綱第一을 理解하고저한다

大河內子 軍部는 어데까지軍本分을다하면 조흔것이라고 軍人의政治干與를警戒하고 다시官僚의獨善主義를警戒하고

大河內子 會期가 切迫하고잇스면서도 首相을비롯하야各大臣의貴族院出席이 甚히조치못한데 이래서는 審議를進行할수업다 何故로 政務官을두지안는가 事務次官만으로는 充分히行할수업지안치아니한가 또 組閣에當하야 何故로 黨籍離脫을求하엿는가 그眞意理由를듯고십다 다음 行政機構改革의根本方針을듯고십다 首相의答合에는相當한 遺憾이잇스나 世上에서 傳하는것은 遞信、鐵道 又는 商工農林은 合倂함은 意味가업다 그것보다도 陸海軍을合倂하는것이조타 또國防上으로보아 國策統一으로어떠케생각하고잇는가

林首相 政界의 廓淸云云을말하엿는데 政界에는 確實히고칠點이잇다고 思한다 政治方針은日本政治는 天皇御親政下에 內閣이 輔弼하야 政治를行하고 國務大臣이 輔弼하고잇다고思한다 또官僚政治라하엿는데 그러한일은업다 모든方面의 意見을듯고 人材를 集中하고잇다 兼任大臣이 만흔것은 準備가되지못하엿기때문이다 政務官問題는只今考究中이다 組閣에際하야 黨籍離脫을 要求한것은 現下國情으로보아 그러케한것이조타고생각하엿기때문이다 行政機構改革에對하야는 自由主義의조흔點은 이를殘하나 國力充實을 圖하는點으로 產業其他各種不得已한點에對하야 適當한統制를加하는것이 조흘줄로思한다

杉山陸相 一、軍人은 政治에干與하여서는아니된다고 思한다 軍人은日夜軍務에服하고잇스므로 政治干與에는 關與할수업다 一、政界墮落云云이라함은 二、二六事件이 發生한것도 政治의墮落에依한것이라고 그들이 말한데서부터 出發한것이다 一、宇垣大將이 組閣할때行한 軍의 行動은 政治干與는아니다 이것은 너무만히말하고십지안타

一、陸海軍兩省의 合倂은 國防의目的을 達하는點으로 大體의意見이라고는 認定하나 作戰上其他로보아兩省은 相異한 目的을가젓스므로 合倂할수는 업다

그리고只今 그러한일은 생각하고잇지안타

大河內子 다시議會와軍人의政治干與에對하야 再質問하엿다

林首相 議會의 機能을認定하는가 아닌가에對하야는 勿論今議會를 尊重하고 그機能을 充分히 認定한다

大河內子 또議會尊重問題에對하야 首相에 質하는데 林首相은簡單히 答하고 午後零時三分休憩 午後一時半再開할豫定이다

物心兩全의 一大精神運動
南總督近近闡明乎

四億一千二百萬圓의 膨大豫算을 中樞로하고 躍進하는朝鮮은 陽春四月新年度를 마지하고 더욱 各種事業의 擴張을보게되여 經濟的活況物質文化의 飛躍은 一段顯著할것이라고 豫想되는데 南總督은 半島에 第一步를 印한 當初 聲明한 物心兩全主義로부터 요즘 單純히 經濟的活況뿐만이아니라 全朝鮮을 一括한 一大精神運動의 旗幟를들고 官民一致 國民的 精神發揚을 期하야 各種事業勃興에 半島 二千萬民衆의 奮과 非常時局을 任할 決意를 蘊然케하고저 近近總督府局長會議或은 各道知事會議其他모든機會에 이를闡明하야 全朝鮮官民에 呼訴하게 될것이라한다 右南總督의 提唱하고저하는精神運動의 骨子는 國家의 非常時와 着任以來 施政方針에基하야 實際的指針을 明白히한것인데

第一 國體明徵의 徹底를強調하고 現下非常時를 克服할日本精神涵養을 目標하고 神社參拜徹底、國旗尊重、國語의獎勵 武道獎勵等이 그具體的事項으로例擧되다

第二 日本의 新使命의 眞義를強調하고 皇國日本의 使命을 全朝鮮民衆에 徹底시키며 日滿不可分의 基礎에 基한 朝滿一如政策遂行、伸長하여 가는半島의進行할 方向을 指示하며 다시國防的見地에 基한 半島의重要地位 赤化防止、日滿防共協定에 依한半島의 積極的活動等 現下國際情勢에 鑑하야 半島의 使命을 一段強調할것이다

第三 右精神運動이 所期의 目的을 貫徹함에는 먼저施政一新이 緊要하다하야 舊來의積弊를 一掃하고 淸新의氣運을 涵養하는中에 施政의圓滑한運行을 期하고저 單純히民間에 소리만 크게할뿐아니라 官吏自體가率先하야 一般民衆에 範을 垂할것을 主眼으로 心田開發 農山漁村振興等從來의國民的運動에 一大拍車를 加하는것이라고觀測되며 物心兩全의 半島는 南總督의右指導精神闡明에依하야 強力한前進을 開始할것으로豫想된다

에國皇太子
英國戴冠式에參列

【倫敦二十八日發同盟】英政府는 에듸오피아皇帝를 新帝戴冠式에 招待하엿는데 倫敦駐箚에듸오피아公使館當局은 戴冠式에 皇太子마긴넨殿下가 御出席하실것을 二十八日左와如히發表하엿다 에듸오피아皇帝陛下는 英帝죠지六世의 戴冠式에 皇太子마긴넨殿下를 出席시키시게되엿다 마긴넨殿下께서는 目下예루살렘市에 御滯在中인데 近近倫敦에 向하야 御出發하실것이다 伊太利政府는 英政府가 에듸오피아皇帝에 招待狀을 發한데 對하야 不滿한 뜻을 表하고잇는데 마긴넨皇太子가 事實上出席하게된다면 伊太利政府는戴冠式을 뽀이콧트하는것이아닌가 推測된다

陸軍定期異動 朝鮮關係의分

陸軍定期異動朝鮮關係의 主要한者는 如左하다

▲轉補

○○司令官 陸軍中將 尾高 龜藏
補第十九師團長(羅南)
陸軍軍醫學校幹事 軍醫中將 三木 良英
補朝鮮軍軍醫部長
陸軍少將 田路 朝一
補步兵第三十七旅團長(咸興)
步兵第三十七旅團長 陸軍少將 加納 豐樹
補第三師團司令部附(名古屋)
朝鮮軍副官 步兵大佐 山田謙二郞
補第四十一聯隊長(福山)
步兵第三十聯隊附 西脇 宗吉
同 補朝鮮軍副官
步兵第八十聯隊長 岡田 資
同 補第四師團參謀長(大阪)
補第八十聯隊長(大邱) 鈴木 謙二
第二十師團司令部附 槇野 文五
同 補松山聯隊區司令官 吉田 弘
朝鮮軍副官 步兵少佐 江上 ○兵衛
補近衛步兵第三聯隊附
朝鮮軍司令部附 步兵大尉 二宮 義雄
補朝鮮軍副官
同 愛甲 哲
補第十六師團獸醫部長
朝鮮軍獸醫部長 獸醫大佐 小野 紀道
補朝鮮軍獸醫部長
同 吉村 市郞
補陸軍獸醫學校研究部部員兼同校教官
京城憲兵隊長 憲兵大佐 城倉 義衛
補關東憲兵隊司令部總務部長
熊本憲兵隊長 憲兵中佐 田原 靖藏
補京城憲兵隊長
朝鮮憲兵隊司令部部員 高地 茂都
補熊本憲兵隊長

人事·集會

◀徽新同門會 市內徽新學校卒業生同門會는 三月二日午後二時卒業式終了後 同校內에서 定期總會를 開催

八面鋒

◇오래 問題中에 잇든 平壤의 미숀三校、마친내 韓仁輔氏란 篤志家를 맛나 更生의 曙光。

◇이미 經營者側과 調印도 終了되고 宣教本部에 請訓하얏다하니 問題는 米國宣教部의 態度 하나。

◇設立한 動機로 보나、朝鮮의 敎育的 現狀으로 보나、平壤人士의 熱誠으로보나 存續은 가장 適當한 方策。

◇官立五專門 志願者、募集員의 四倍 乃至 六倍。

◇이點으로 보아도 三校 存續은 絕對 可。

◇南長老系 學校도 北長老系에 따를 意思는 無乎?

◇尾崎氏 質問書에 陸軍側 憫笑的 態度라고。

◇純黨政論과 時局認識論과의 差異。

◇政友會 議員總會 四人制代行機關을 決議

◇問題는 運行의 善否。

本社參觀

◀鐵州公立普通學校生八十三名本社見學(二十八日午後四時)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六十名朴貞孝氏引率下 本社見學

空前의傑作流行歌 歌盤界에斷然리ー드

모ー던風景 歡樂의春情
미스대평 仙嬌
태평레코ー드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中學全學期 十二卷十二冊 合本을단지 一圓五十錢에 投賣함
緊急處分으로 內容見本은 업다。
發賣元 大阪市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外科 肛門病科
入院室全部溫突 設備 京城府樂園洞一三五 醫學博士 朴昌薰

各種信託 低利貸出 迅速有利
京城府太平通一丁目十九番地
朝鮮信託株式會社 社長 谷多喜磨
支店所在地 群山、釜山、木浦、平壤、大邱 (營業案內贈呈)

京城鍾路二丁目 完全時計修理 普信堂時計舖

三月二日火曜午前十一時에 母校第十五回卒業式을 擧行하고式後에校友會總會를開催코자하오니 校友諸氏는掃萬來臨하심을 務望
徽文校友會長 謹白

世界的醫療名藥 韓氏膏藥

好職業
小兒內科 京城鍾路 趙漢英醫院 電光一九八七
朝報案內
電話 商品券、賣買、金融 柳商會 明治町入口
恩給 京城府光化門通一四七
女給 募集 白馬新築場
建築 設計 完全美麗 韓工務所

梨花女子專門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文科 英文科 家事科 音樂科
願書提出 三月二十二日限
試驗 三月三十日、三十一日午前九時
詳細本校照會

梨花保育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五十名
願書提出 三月二十二日限
試驗科目 身體檢查、口述
試驗場所 京城府大峴町本校
詳細本校照會

誠信女學校 生徒募集
本科 滿十二歲ヨリ二十五歲迄ノ女子
補習科 普通學校卒業者中再修志望者
出願 三月末日迄 試驗四月一日 (電光一九六二)

普成專門學校生徒募集
一、募集定員 法科、商科各約百名
一、出願期限 昭和十二年三月二十七日限
一、試驗日時 昭和十二年三月二十八、九、三十、三十一日午前九時
一、其他詳細來問 (京城府安岩町) 書面要郵券三錢

自動車學生大募集
免許證獲得ト就職ハ絕對責任保證、實習用自動車及教授用標本完備
朝鮮最古ノ歷史ト最大ノ設備ヲ有シ免許取得者數全國最高記錄保持
朝鮮總督府 京畿道認可 南大門自動車講習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振替口座二一〇五六番 (電本八六七)
財團法人 京城南大門自動車學校創立準備中

財團法人 延禧專門學校生徒募集
一、文科第一學年生約五十名、商科第一學年生約九十名、數物科第一學年生約三十名
二、出願期限三月二十七日但無試驗檢定出願期限三月二十日
三、試驗日字三月二十九日三十日
四、其他詳細來問于京城府新村町本校

奉天東光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第一學年一五〇名 ▲願書提出三月二十日
▲試驗期日 資格檢定、三月二十三日、選拔試驗、三月二十五、六、七三日間
▲願書受付場所奉天十間房第五區東光學園理事會事務所

官認 東洋自動車講習所 學生募集
責任教授 就職絕對保證 新學期無料進呈 自京城驛自動車案內
電本2五四〇二番 振替口座一〇六五九番 京城武橋町三二 (京城府廳裏)

崇實三校問題

南北미슌校喜悲明暗色

經營委員調印同時 宣敎本部에請訓

七十萬圓財團惠擲公表한 韓仁輔氏의敎育界壯擧

【平壤】숭전、숭중、숭의등세학교의 인계문제는 별로신통한재로가 업서 역시암담한장면그대로 진행오든중 평양부내 기림리(箕林里)소장재산가 한인보(韓仁輔)(三○)씨가 칠십만원의재단을 제공하기로 허락이떠러저 일시 갱생을 절망시하게되엿든 세학교 갱생에대해서 일조의서광이 비최이게되엿다

이제새재단 한인보씨가 출자를 허락하기까지의 경과담을드러본다면 숭전교수 량주동(梁柱東)씨와 한인보씨의 친우인김택(金鐸)씨의 공작으로 위선한씨로부터 출자승락을밧고 즉시량주동씨에게 이사실을 전하게되자 오늘까지 삼주간을 허비하야 선교사단과 인계에대한 공작을 진행하야 미국선교본부에 대하야 청원서정문을 협정완료하게되고 압흐로는 경영위원제씨의 조인만기두리게되엿다고한다

경영위원 고한규(高漢奎)씨와 김동원(金東元)씨가 사임하고 후임(後任)인 김승섭(金承涉)씨 그리고고한규씨의 보조역할로 선거된김인준(金仁俊)씨등이 청원서에 조인하게된다면즉 시본부에 청훈(請訓)하야 그회훈이 오월중에도착하야 신재단과 현재단의 재단법인(財團法人)을 완성해가지고 정식의 인계수수가될것이다

그런데 아프로 경영위원삼씨의 조인문제가 남어잇슬뿐으로 오래동안 내려오든세학교 경영문제는 숭실문제가 여전히 리춘섭(李春燮)씨의 재단미레서동시에 인계수속을 취하기로될과함께 한씨는결국 숭전과 숭의두학교를 인수하게되야 완전한해결에 직면하고잇다

이와동시에 금번재단을일선함에 최대의노력을한 숭전교수량주동(梁柱東)씨와 김택(金鐸)씨는 그동안 경과를공식으로 발표하엿다

(사진은 한인보씨)

四十萬圓財團準備 期成會서生徒募集

須彼亞、崇一廢校決定同時에 存續期成會의對策

【光州】기보=남장로교경영인『미슌』스쿨(學校)은폐쇄의최후결정을 지은지난이십일의전주(全州)선교사회의 결정으로인하야 폐교의 비운에 이르게된광주수피아숭일(光州須彼亞、崇一)량교존속기성회에서는 전주선교사회의결의를듯자 연일회합을 계속적으로 하고잇서서 이십칠일 오후네시부터 부내명치정(明治町)숭명학교(崇明學校)에서 기성회를 열고 기성회대표로 전주에파송하엿든 조상항(趙尙亢)씨의보고를듯고 대책을 강구한다함은 작일 기보 하엿거니와 그들선교사들과 명생달지조사를 하러미국으로부터 조선에 나온 총무『풀톤』박사등의 설명과 태도를 보고 또한 오늘의 전주선교사회의 결의를 보면 너무나 성의가업는태도라하야 밤이늣도록 토의하다가 작야수피아 어린녀생도들을 이절식을하고 철야를 하엿다는 보고등을듯고 회장내는극도로 긴장이되야 다음의대책을결의하엿다고한다

決議事項

一、存續期成會가 主體가되야 先整金四十萬圓를 準備 着手할것 (中略)

一、諸般事情이 法的으로抗爭할수잇슴므로 現在校舍其他物品을 假差押處分을하고끗까지 運動할것 (中略)

一、新入生募集은 期成會로서募集하는同時 非常手段을取하야 現職員과密接한連絡으로서實現할 (中略)

家族總出動 百貨店에서窃盜

부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 삼백오십삼번지에 사는 목언년(睦言年)(三○)이라는녀자는 이십일일오후세시쯤에 동거하는 그의울케조씨(趙氏)(二○)와 장녀 정숙(貞淑)(一○)이를 다리고 삼번(三越)백화점에 가서양말일내의비누등을 훔친후 그길로삼중정(三中井)백화점에가서 역시 내의 작난감등을 훔치다가 본정서원에게 체포되엿다한다

須彼亞女校長 全州로急行

生徒要求條件가지고

【光州】지난이십사일 전주에서열린선교사회의로 인하야 최후의 판단을바든 광주수피아녀학교생도일동은 이십륙일 오전부터 동교강당에 모히여 학생대회를하고 이어절식을 하고철야를하며 교장류화례(柳華禮)씨에게 두가지의 강경한요구조건을 하엿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동교장은그요구조건을가지고 이십칠일에 전주선교사들과 타협차로 급행하엿다 그런데 생도일동은 이교장과약속한 삼월삼일까지 교장이조흔소식을 가지고 도라올것을밋고 고대하고잇다하며 이것실행업에는일제히 최하을한다하엿스나 공기는 매우험악하다고한다

"放火證據업다！"

動機모를放火被告趙元熙 裁判長無罪를言渡

동기모를 방화(放火)사건으로 어떠한판결이 내릴지 자못일반의흥미를 끌고잇든 부내성북정(城北町)일백칠십오번지 조원희(趙元熙)(二一)에관한 방화피고사건의공판은 일일오후한시 경성지방법원형사부제사호법정에서 증촌(增村)재판장주심 김(金)검사관여미테 열렷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팔년구형에 대하야 공소사실인 피고가 작년일월십구일 부내와룡정(臥龍町)일백이번지 리은용(李銀用)의 집을 비롯하야 그해이월이십일까지 익선정(益善町)、수은정(授恩町)、돈의정(敦義町)등 여섯곳에 련거허 불을노앗다는사실은 증거업는것으로 인정하야 무죄판결을내리자 피고는반가히 재판장에게 례를하며 자못감개무량한빗을보엿다 이리하야 상당인부유한가정에 태어나서 전문학교까지 중도에 퇴학한청년으로 원인과동기도업시 술을먹고 방화를하엿다는혐의로 경찰의취조를마친다음 송국되야 예심에까지 걸려일년남어지나방화마의락인(烙印)이찍혓든피고조원희는검사의공소가 업는한곳무죄백방되야 청천백일을보게되엿다

假짜小切手를發行 三萬八千圓詐取

京電乘務員과뿌로커의合作

京畿道警察部에서各道에指名手配

은행에는 예금(預金)한푼도업스면서 삼만십원짜리의 가짜소절수를발행하야상품과박구어서속여먹고 도주해버린 대담한사기사건이발각되엿다 범인은 부내충신정(忠信町)륙십일번지의 사호에사는 경성전기회사 승무원석만히(石晩熙)(三○)와 상왕십리정(上往十里町)이백팔십오번지사는 『뿌로커』 정영수(鄭榮洙)(三○)의 두명으로 그두명은 은행에거래가 업슴에도가리지안코 지난 동일은행서대문지점(東一銀行西大門支店)에서쓰는 소절수책(小切手冊)을리고남은 예금(當座預金)이잇는것가티 꾸며가지고 지난이십일일에 애여만십원짜리 소절수를 발행하야 부내례지정(禮智町)사번지 허태종(許泰宗)상점에가서 그것으로써 상품과바꾸어서팔아먹은이외에도 십여건에 일천륙백여원의 사기취재를하고 어데로인지 행방을감초아버렷다한다 그래서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이범인일에 전조선각지경찰에 이두명을 체포하여달라는 통지를 급히 발송하엿다

虛榮에떠서飮毒

가난과고생사리보다 차라리죽엄을擇한젊은안해

허영심을 만족식히지못하야 자살하려든 젊은여자──부내향촌정(杏村町)이백십번지 김동수(金東壽)의안해 김은숙(金恩淑)(二二)은 이십팔일 오전열시쯤하야 자기집에서『칼모틴』을만히먹고 고민하는것을 그의가족이발견하고 곳부내서대문정(西大門町)동서의원(東西醫院)에데려다가 응급치료중이나 원체분량을 만히먹은관계로 생명이 자못위독하다고한다 김은숙은 작년삼월에 인천(仁川)에서 김동수와 련애결혼을하야 처음에는 어려운살림이나마 자미잇게 사러왓스나 애정이 차차식어감에따라 그의 허영심을만족식혀 주지못하는 남편에게 불만을품게되야 항상그들의 가정에는 싸움이 끈치지를 안하든차에 이십칠일에도 사소한일로서로힐다툼을하엿는데 김은숙은 무단히 집을뛰어나가 경성역전어떠한관에 가서잇는것을 그의남편이 차저가서 데려다가 위로까지하엿스나 허영에뜬그는가난과고생에 쪼들리며 어려운살림을 하는것보다는 차라리죽는것이 낫다고 생각되엿든지 전기와가티 사람의 눈을피하야약을먹고 자살을도모한것이라고한다

依然한入學難 市內卅四個公普校狀況

收容力은겨우六千 志願者는約萬名

新築及新設三校가完成되여도 約四千名은街頭彷徨

경성부학무과에서는 지난 이월일일부터 이십일일까지 경성부내각 공립보통학교 일학년입학 지원서를 수리한결과 일만여명에 달하엿다。 금년에 수용할 총수는 건축중에잇는 홍제(弘濟) 동부(東部) 서부(西部)등 세학교 보통학교와 정차 신설할려는 동의 수용예정수 사백삼십이명을 제하면 기설 이십사개공립보통학교의 수용수는 오천구백칠십륙명밧게 안되므로 결국 약사천수십명은 입학경쟁에서 제외되여 거리로 몰려나가게될 운명에 잇다

이십일일까지 접수한 입학원서는 동부룡산 영등포등 세곳부청출장소에서 취급한것으로 약사천명 본청관내에서 약륙천명가량되야 합게 일만명가량되다는데 호적과(戶籍課)에서 호적대조의 정리가 끗나지안햇스므로 우선대략 일만명가량으로추정하는것이라한다 이미 마감날자를지난 일일에도 오후두시까지에 입학원서일백오십매나 제출되엿는데 이것의 처리에 대하야는 류본(柳本)학무과장은특별한 리유가업는것이외에는 수리하지안흘 방침이라한다

그러고 금년에도 모집정원수의 거의배나되는 입학지원자를 보게되엿지마는 그래도 년령제한과 현주소를 엄격히 조사취급한관계로 작년보다는 비교적 완화되엿다고 본다한다

自動車에重傷

이십칠일 오후아홉시쯤에 종로(鍾路)이정목 칠십륙번지압길에서 시내창신정(昌信町)칠번지 금강(金剛)택시 김영배(金榮培)(二二)가 운전하고가든 경구천이백사십륙호자동차에 마침 전차길을건너가려든 시내계동정(桂洞町)일백사십칠번지의괄호 곽영자(郭英子)(三)가 치여서 두부에 두곳이나 타박상을 바덧다고한다

동강이난兒屍

지난이십칠일 오전아홉시쯤에 경원선(京元線)련천(漣川)대광리(大光里)사이의 철도를 경성서떠나함흥(咸興)으로가든 제오백륙십일렬차가 통과할시음에 몸덩이와 수족이 동강이동강이끈처저서 죽은사오세가량되는 조선남아의 시체한개가 발견되엿다 한다주소성명은아직알수업다한다

新版庭園師詐欺 取調도一段落

기보=부내명륜정(明倫町)이정목구십삼번지에사는 리천수(李千洙)(三○)가 신판정원사로 부내신설주택지대를 횡행하며 정원수조의 청부를하는사이에 식목과나무종사에 사기행위를 한것이수십여건으로 피해액이 삼천여원이엿고 수년간에 사기한거금으로는 경향에 처첩을두고 호유하엿다는 그의행장은 기보한바와가티 룡산경찰서에서 지난이월십칠일에 체포이래 취조를 진행중이엿는데 현장조사와 피해자의 증명서류수집등 조사의일단락을지여 일건서류와가티불일간에 송국될모양이라한다

飢餓에들복겨 罷業團一齊就業

釜山港埋築工事場罷業一段落

【釜山】부산항매축공사장파업사건은 토취장(土取場)인부사백여명외의 남어지인부들은 강경한태도로 일을하지안코 버티고잇든바 파업제오일인 지난이십일일에는 토사장(土浚場)인부일백여명을 제외한 남어지인부들은 전부일터에 나와서 일을하게되엿는데 지금까지 강경히버티고잇던 그들이 비교적속히 일을하게되리유를 적어보건대 그들은 먹을량식이업서 기아선상에 직면하게되엿슴으로 얼마되지안흔 품삯이나마 벌어서 굶주린 창자를 채우지안흘수업는 딱한사정에 절박된것과 또지유론동자인동시 각처에 산재하야잇는 관계상 서로긴밀한련락과 단체적행동을 취할수업슬뿐아니라 지도분자가 업기때문에 조직적활동과 통제를 보지할수업는등의 관계로 그와가티 비교적 속히 취업하게 되여서 조선동무계에 잇서서 초유의 대파업의 기록을지어 일시는 세인의주목을집중하던 대파업도일단락을 고하게 되엇다고한다

花鬪賭博團檢擧

現行犯十一名과판돈一圓도

이십일일 오후령시이십분쯤에 시내 원서정(苑西町)일백팔십사번지 리우산(李又山)의 집에서 전기 리우산과권농정(勸農町)사십칠번지 정영섭(鄭永燮)(三五)외 아홉사람 모두 열한사람이화투도박을하고잇는 현장을종로서원이 발견하고 그서에 인치하고 판돈 일원사십전을 압수하엿다고한다

勞賃七千萬圓！

勞動力需給은어떠케할가？

今日關係當局者協議會

사업경기의 팽창을전제로 금년에다수로동자를 사용케될기회에 이를원만히통제하려는 목적에 일전총독부가 중심이되여 토목건축협회간부등과 회합하야 간담회를열고 망범위의문제를토의한뒤를이어 각지에서 로동자의알선기타의사무를 직접담당한 지방과장과 사회주사의로동조정(勞働調整)사무타합회는 일일오전십시부터 총독부제삼회의실에서 열리엇다 회의순서는 먼저 내무국장으로부터

금년은 각종대규모의 공사가 전조선각지에 발흥하야 공사비는 일억칠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배나되며 이때문에 로동자를 사용케되고 로임으로약칠천만원이나 산포케될터임으로 이때에로동자 일반적 문제를 원만히할바이라

는 의미의훈시가잇고 다음과가튼 지시사항의설명과 각지의사정청취 도협의사항이 잇섯다회의는이일까지 계속될터이다

◇指示事項

一、勞働調整에 關한件

二、工場及鑛、鑛山勞働者의斡旋에關한件

◇聽取事項

一、各道에의勞働調整에關한具體策

◇打合事項

一、勞働調整上의 [illegible]에關한事項

二、勞働者募集과輸送에關한事項

三、勞働者의保護指導에關한事項

四、勞働調整에要하는 旅行外旅費에關한事項

五、總督府에서 斡旋할勞働者의配定에關한事項

牛肉行商人은 意外의大賊

各處에서洋服、白米等窃取

용산경찰서에서는 이십일일 오전영시쯤에 부내 강기정(岡崎町)륙번지 지정에서 고기행상으로 꾸민 거동이 수상한 통행인을 소관룡산서원이 즉시 체포하얏는데 그는 부내 광희정(光熙町)일정목일백구십오번지에 사는 전과사범의 유복쇠(兪福釗)(二五)로 그의 행장을 수사중 양복 우아래한벌이 드러잇섯다 여죄를 취조하자 그는 지난이월십구일 오후두시에 부내 청엽정(靑葉町)삼정목 이십사번지에 사는 대삼행차(大森幸次)의 집에 친입하야 사지양복한벌과 백미 십오키로를 절취한일이잇고 이월이십칠일오후일곱시쯤에 부내광희정(光熙町)어느집에 드러가서 양복우아래한벌을 절취하야 일질한것을 자백하엿다는데 그서에서는 계속취조로 여죄를추궁중이라한다

運動競技

徐廷權君敗退

臼田拳鬪會主催의 徐廷權君(無屬)對 金剛(臼田)의 拳鬪戰은二月二十六日午後六時半부터 日比谷公會堂에서 열린바 이날徐君은 新進金剛君에게 判定으로敗退하엿다고한다

貨物自動車에 七歲男兒卽死

화물자동차가 일곱살먹은 아이한명을 치여죽엿다 이십일일 오후다섯시반쯤에 부내 홍제정(弘濟町)이백십팔번지우모(禹某)의 아들우성(禹成)이라는 일곱살먹은 아이는 홍제정 홍제다리우에서 놀다가 부내 효제정(孝悌町)삼화(三和)「써ー비스」안에잇는조일조(朝日組)화물자동차부운전수한대성(韓大成)(二一)군이서 운전해가든 화물자동차에 머리를바치여 뇌출혈로즉사하엿다한다 운전수는 그아이가 그다리외편에 서잇는것을보고 올흔편으로「커ー브」를 돌렷는데 별안간에 그아이가 그자동차아페 뛰여드러 부다치게된것이라한다

京城府第二敎育部會

제이차 초등학교회장 십년계획안의 제일년의 예산을 결의할 경성부 소화십이년도 제이교육부회는 일일오후 두시이십분부터 경성부회의실에서 의원십칠명(네명은결석)의 출석으로 회되엿다 먼저 감자부윤의 교육회충안에대한 방침에대한 연술(演述)이 잇슨뒤에 의사진행을 시작하엿다

市內各學校卒業式

東星商業學校 三月四日午前十時 同校內서

中央高普 三月五日午前十一時

協成實業 三月三日午後一時同校內서

天氣豫報

概況 七五一미리의 低氣壓은 北滿으로東進하고잇고 또 臺灣附近의 石垣島 小笠原島附近에는 弱한低氣壓이잇나 高氣壓은 東北地方에 七六八미리를보이고 朝鮮의 氣壓은 노푼모양이다 滿洲、朝鮮은晴 南朝鮮과 日本內地는 흐렷스나 東北地方以北은 개엿다

豫報 今夜는晴 明日은晏全 區同一

昨日最高 四度九
同 最低 零下七度三
今朝最低 零下四度八
今日正午 六度

회충 촌충엔 오리가 도루사가 제일

치질엔 엥구루가 제일

해소 기침엔 에치세ー가 제일

속병 체종엔 겡오ー가 제일

약을써보시고 만일무효면 언제든지 책임이 집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側)(五) (제일은행오양관)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輪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九○

새로운빠ー
여러분의社交場
샤리템플과가티어여쁜써ー비쓰
빠ー 미쓰템플
京城府永樂町202
電光2352

巡査看守(講義錄)
巡査看守志願者는本會講義錄卒業에依하야 合格保證、特典으로鮮人巡査試驗問題集等 一冊無料進呈함(但入會者에限함)
京城府永樂町二丁目一番地
朝鮮警務學會
(規則書郞送) 電本(2)三○二○番

參謀本部陸地測量部發行
五万分一地圖販賣元
京城公平町六六 東亞商會

生徒募集
京城中等公民學校
本科(三年制) 入學資格小學校普通學校卒業程度以上
夜商業專修科(一年制)
出願期限 四月五日迄
商業專修科 八四月十日迄
試驗 四月六、七日
太平通大漢門橫入 電本四、七八二番

普成高普校友會

來三月三日午後一時에 第十五回卒業式擧行하오니 校友諸氏는 多數旺臨을敬要式後에 校友會總會가有함

水玉産婦人科
平壤府水玉里 (電話一○六九番)
醫學士 李麟杰

全州李氏瑞原君子孫에게告함

京城府上通町(舊始興郡東面金佛庵)에 在한瑞原君以下各墓所所在地林野가賣却되不祥事實을 一般宗親總意에依하야 其措處方法을討議決定코저 本月七日(日曜)午前十時 京城府太平通府民館에서 宗親大會를 左記와如히開催하오니 遠近僉宗은屆期出席하심을仰要

一、各處宗中에서代表로出席하시는宗親은必히署名捺印한委任狀을持參하실일

一、如何한方式으로던지本大會에出席치아니한宗親은本大會의決議事項을承認한것으로認定함

宗親大會召集發起人
京城宗中代表 李會駿 李起鉐
始興宗中代表 李康明
富平宗中代表 李聖儀
通津宗中代表 李泰儀 李正儀
振威宗中代表 李康世
牙山宗中代表 李競儀
南原宗中代表 李升儀 李豐儀
京城府內需町七○ノ六 全州李氏瑞原君派 宗中臨時事務執行委員 李光儀 李康全 外十八人一同

訃告

鄭公尙鎬氏 以宿患本月二十七日(陰正月十七日) 午前三時別世玆告訃

葬禮 三月三日(陰正月二十一日)午前十一時市內富井町九十番地自宅

葬地 東小門外彌阿里共同墓地

返虞 除禮

昭和十二年二月二十七日

嗣子 仁雄
次子 玄雄
護喪 黃大淵

急告 滿天下鑛業家諸氏

!! 本商会鉱山部를利用하시요

賣鑛을願하시는분

賣鑛을願하시는분은左記五條件을具備하야本商會鑛山部로付送하야주시면買入又는斡旋하야드리겟나이다

(1) 鑛石標品見本一貫
(2) 鑛山圖面二通
(3) 鑛山의說明書二通
(4) 十萬分之圖一枚
(5) 分析表一枚
(6) 賣鑛表一枚 (賣鑛表가업스신분은分析表分析表가업스신분은鑛石만으로도조함)

鑛業家의福音

鑛石을賣却하시려는분

1、賣鑛을 願하시는분은 以上과가티 하시려니와
2、鑛石을 파시려는분은 鑛石도買入 又는斡旋하여드립니다
3、其他鑛石分析도 依託하시면 迅速히하야드리며
4、鑛山鑑定을 要하시는분에게는 技師도派遣하아 드리고
5、有望한鑛山이면 資金도融通하여 드립니다

告!!

本商會鑛業部에서는 우리鑛業家諸氏中 鑛山을가젓스나 資金이업서 採鑛을못하시는분 賣鑛하려하나 要路를엇지못하야賣鑛치못하고 허둥지둥하다가 結局 挾雜輩에게 詐欺를當하거나 權利取消를 當하고말거나 제갑을밧지못하고 他人에게 헐가로 可謂拋棄하여버리시는분이 만흠을探聞하고 此를甚히可惜히 생각하와 玆에 滿天下鑛業家諸氏를 爲하야 大阪、東京市內 各大會社重役과 斯界權 되는 技師諸氏와密接한關係를매저 直接買入紹介斡旋을하는同時에 賣鑛要路及 採鑛資金을 提供케하려하오니 賣鑛을願하시는人士는 勿論、有望한鑛을所有하고도 採堀資金融通에 困難을當하시는人士는左記要件을具備하서서 本商會鑛山部로 照會하심을敬要하나이다 本商會에서는 必히에應하야 本商會自費로 大會社專門技師를 派遣鑑定한後 有望타認定하는鑛山에는 資金을 融通하거나 買入하거나 賣鑛紹介等을 親切叮嚀히하여드리겟사오니 安心하시고 照會하시오

營業種目

一、鑛山買入
二、鑛石買入
三、鑛山賣買斡旋紹介
四、鑛石分析取次
五、鑛山師派遣調査
六、有望鑛山에投資

等을 親切叮嚀히 取扱하오니 安心하시고 照會하시오

大阪市西區京町堀通四丁目七番地
合資會社 東洋物産商會
鑛業部
電話長土佐堀五八八番
振替口座大阪一〇七四五〇番

자무얼먹나

家庭

새로입학하는아동 치아위생에대하야
치아는건강상태의표식 (二)

세부란스病院齒科 金喆庸

그러나 유치의충치를 등한이한다든지 구강내(口腔內)를불결히한다하면 이귀중한 치아가 충치가될것입니다。 더구나 류세구치에는 음식물이 끼어잇기쉬웁고 다른치아보다 가장만히사용하게됨으로 만일에 벌레가먹엇다든가 일즉이 빠지여 업서젓다하면 음식물을 충분히저작하지못하야 소화기능을 둔하게하며 한창발육이왕성하야 장성할 아동의체격(體格)을 못쓰게할것입니다。 이러한의미에서 더욱더욱 주의하야 류세구치를 가정에서특별히 보호하도록하여야 할것입니다。

四、정상의저작

음식물이 생명에기초(基礎)라할 은 루차말슴드린바이나 이음식물의 소화(消化)가잘되고못되는 것은 위(胃)나장(腸)보다도 제일먼저 저작(咀嚼)하는대잇다고 볼수잇습니다 무슨음식물이든지 우리는 압니(前齒)로 물어서 송곳니(犬齒)로 끈흔다음 악구니(大臼齒)로 갈어깨트려(解碎)서 춤(唾液)과함께 석근다음 위선 입안에서 소화작용(消化作用)이 실행되자 그다음에 위장으로보낸것이 전신에영양(營養)이될것입니다 결코 위나장이 튼튼하다고 조금씩 저작한다음 위장으로 보내는것은 신체발육에 큰장해가될뿐아니라 치아가 들어잇는 악골(顎骨)의발육이 왕성치못하야 결국은 치아에동요(動搖)혹은 고흔얼골이라도 변해지게되는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입안에서 될수잇는대로 꼽게저작하야 그음식물의 맛(味)을 알게함은 즉위액(胃液)의분필(分泌)을 왕성하게하는동시에 위로보낸 음식물을 위액과더부러 소화작용을 무난(無難)히한다음 장으로 보낸것이 우리전신에 흡수되야 피와살이되는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소화기능(消化機能)의 제일선인 저작작용(咀嚼作用)에늘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五、안면의형체

먼저도 말슴한바이나 음식물을 꼽게꼽게 저작한다함은 소화기능(消化機能)을 왕성케할뿐만아니라 음식물먹을때마다 상하악(上下顎)의치아가합하야 서로힘들스는관계로 이뿌리(齒根)주위(周圍)에잇는 조직(組織)에 자극(刺戟)을주어서 혈행(血行)을 잘시키며 따라서 세포(細胞)의 활동을 왕성하게하야 악끌(顎骨)의 발육을 완전하게하며 얼골의형체도 변함이업을것입니다。또한음식물을 꼽게저작할수록치아를정결히 하는작용이 잇스니 입술과뺨과턱의 근육(筋肉)운동이되고 더구나 한창자라가는 아동들의 뇌수(腦髓)까지라도 발육하게될것입니다 얼골(顏面)에서가장중요하다할만한것이 턱이라할수잇스니 특별히코(鼻)밋부분이 완전하여야만 그사람용모(容貌)가어떠하다고 하는것이 보통일까합니다 이가튼점에서 미인(美人)을말할때 물론입반으로 건강한체격과 안면의 구조(構造)여하에 달리엿다고 볼수잇습니다。그러나 턱을 중심으로한 하반분(下半分)은보통 변하기쉬운것으로 맛치 보통학교나소학교의 아동들이 자세(姿勢)를 잘못가지여서등(背)이 꾸부려진다든가 혹은어깨(肩)가올라간다하듯이 조그마한 부주의로 충치가되게하야 저작을잘못하고 일즉이발거(拔去)하야치열(齒列)이 고르지못하게되면은 즉 다시말하면 얼골의모양을 변하게하는것이니 특별히 소학시대의 아동들에게 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六、습관을곳칠것

코나터이 삐두러저서 얼골의모양을 흉하게하는것은 먼저말슴한바와가티 저작하는데서생기는것이 만흐나 그외에 다른 여러가지 원인으로도 발생되는것입니다。즉악습관(惡習慣)으로도오는례가 적지안습니다。가령 입으로 호흡(呼吸)하는습관을가진사람은 흔히 편도선병(扁桃腺病)으로 말미암아 코가맥히여서 자연히 아지못하게 입으로호흡을하게 됩니다。이러한병을가진사람은 대개상악전치(上顎前齒)가 몹시아프로 나오든지 또는코가 삐두러저서 보기에대단해롭습니다。취침(就寢)중에 벼개를 잘못비는습관을가진사람 혹은 손고락을물고자는사람은부지중에 악골이변하야집니다。또 입술을물거나 손톱을물거나 연필을물는등혹은 손고락은빨거나 혀(舌)를입속에서 쓸데업시이리저리보내는악습을가진사람은 역시치열(齒列)이변하야지며 따라서 악골의형체가 변하야질것입니다。이러한원인으로 특별히 소학교시대에는 더욱더욱주의하야 어렷슬때 조그마한악습관이 장성하야 얼마나큰영향이잇슬것을 생각하시고 만일에귀여운자녀들가운대이상의악습관을 가진분이 잇스면 서로곳치도록힘써야할것입니다

어린차지

별님

별님별님
하늘에서 내려오
반디불처럼
훌 훌
날러와요
별님별님
하늘에서내려오
우리동무들
다모엿스니
이야기하나해주오。

(글쓴사람 박세창)

梨花女高普

한줄기샛비치동방에버치니 무궁화동산에첫봄이 왓도다 고목에 싹도다 꼿치피오니 선인이 이름해리화라 하섯네 정동고개를 너머서면 옛향기 남아잇는안악터에 매태끼인옛집이 전통을자랑하고 파란만흔 이땅의 교육계력사를 이야기하는듯 리화여자고등보통학교가터잡고잇습니다。오래인 력사와빗나는 전통은 이학교의 자랑이거니와 길고긴과거에 우리여성계의 일군을수만히 길러내고아프로도 기리기리축복바들 이학교에서 깜장무명치마에 자주빗제복을버서버리고 나올금년의새일군아가씨들은 전부가륙십팔명입니다。

사년동안 기독의복음과 조선의전통을 배우고 서양문명의리상적리해를 우리의가정에 가저오도록교육바든 륙십팔명의 아가씨들은 대개가 상급학교로 가정으로 흐터갑니다 취직지원자가 다른학교에비하야 아조적은것이특징인데 지금형편으로는사오명에불과합니다。

금년졸업생가운데는 여러가지재질을 가진사람이 만습니다。공부잘하는 리정수(李貞洙)리원숙(李元淑)두양과 피아노 잘치기로유명할뿐 아니라 리화전문주최의음악회에서 일등을한 김혜란(金慧蘭)노래잘부르는 김영자(金英子)두양도 자랑거리거니와문학에 재질잇는 민수례(閔壽禮)양은 여류시인으로 이름잇는 주수원(朱壽元)씨의 가르킴미테서 압날의여류문단을 노리고잇는 이들입니다 운동선수로는 농구잘하는 박수란(朴壽蘭)최히섭(崔喜涉)박순학(朴淳學)양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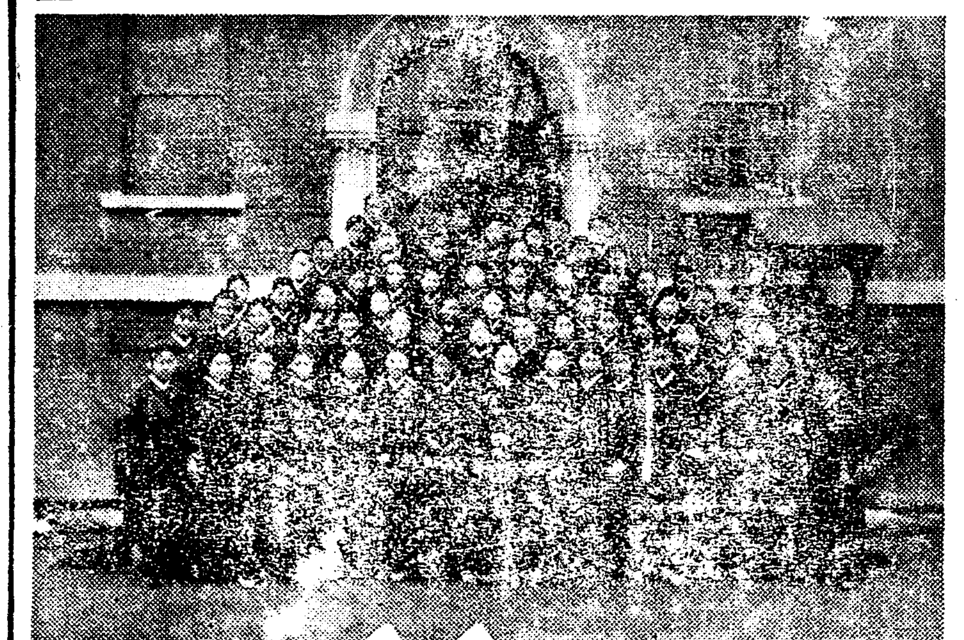
向上技藝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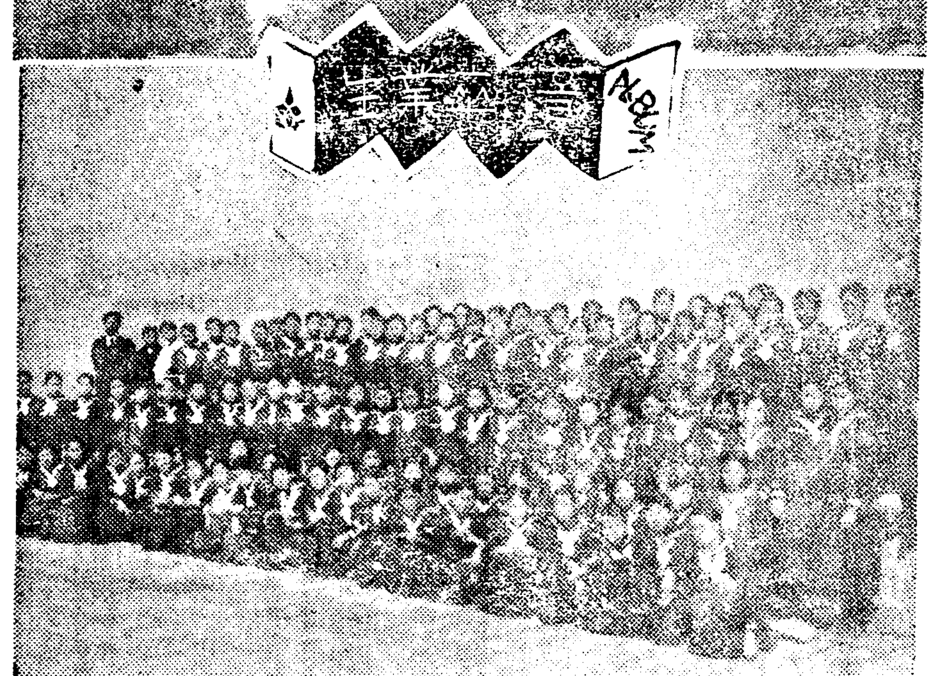
지금은 향상여자실업학교(向上女子實業學校)로되엿지마는이때까지는 향상여자 기예학교로 내려왓고 졸업생도 기예학교로서는금번이 마즈막이라고합니다 판동마루턱에 산뜻한이층양옥ㅡ조선에서 기예를 전공하는학교로는 이것이처음이엿습니다。

바누질솜씨를 배우는아가씨들만이 일백칠십명이나되는가운데서 금년에졸업하는 사람이본과(本科)구십삼명 연구과(硏究科)에열두사람 모두 일백다섯사람이나오게 되엿습니다。이학교의특징은 수잘노코 바누질잘하는것이특징이며취직희망자가 스물일곱명 상급학교에갈사람이 열두사람 그나머지는 모두 가정으로드러가게되엿습니다。

작년가을에 열린 본사의 학생미술전람회에서 명예스러운특선상을탄성경순(成慶順)양의 수잘놋는이야기는 더말할것도업지만 딴스잘하고음악에천재소질이잇는 리원경(李源貞)양과 무용가 최승희(崔承喜)여사가 경성역에나리자 이른새벽부터 기다리고섯다가 그의 려관까지 딸아가서무용가가 지원이라는 김인규(金仁圭)양이모두 금년 졸업생가운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공부잘해서 우등생으로나려온이는김순경(金順卿)김순히(金順姬)김정숙(金貞淑)오세택(吳世澤)양들이 이학교의자랑입니다





內房漫想

정월보름
인정의기미를말하는모든풍습 ⑪

吳淑根

이때 선배되는사람이 묵희(默戲)라고 붓으로 두눈에다가 동그래미를그리고 다시신래를압호로잡아다렷다 뒤로밀엇다하기를 두세번하는법인데 이것을『신래불린다』또는『호신래(呼新來)』라고도합니다。만일선배되는사람이 가튼년배(年輩)요 평소에친하게지내든터이면 압뒤로 진퇴(進退)를시킬때 가진욕설과작란이 무쌍하얏답니다。

이러케 두눈에다가 먹으로동그램이를그리는것을『안경(眼鏡)그린다』고합니다。아마 신래(新來)라는 새신(新)자와 귀신신(神)자가 음이 서로 가튼데서 깃붐에넘치는표로 작난삼아 귀신의모양을그려 서로한바탕웃어보자는데서 나오현인가합니다。

이러케 안경(眼鏡)그린다는것이 유상사(有相似)로양쾌이가되고 축하하는뜻이 어느틈엔지변해서、귀신작난이되고 귀신이라하면 의례히악귀나 악마를 련상(聯想)하게되는선입견(先入見)에서 신을신어가면 그신남자가 죽는다고까지 주작부언이된것이나아닌가합니다

그러타면 양쾌이가사람의신을 신어간다는것도 맨처음에는 신을일흔사람이 진사급제도 하고 대과도하야 후일에영귀하게될사람이라는뜻이엿든지도 모를일입니다。

이것은 다만 나의 추측이요 상상(想像)이지 이러타고 꽉단정하는바는아닙니다。

十七、개굶기기

정월보름날은 오롱일 개를붓들어매두고 굶기는풍속이잇는데 만일 이날밥을주면 그해여름에 개파리가승해서 그개가말은다고 합니다。그래서 벽적마른사람을 보면 보롬개갓다는말이잇습니다

그러고 또한가지리유는 속담에 해와달이업는『어둑나라』(혹는 떤세계가 잇서서 그나라에서 매번 인간세계로 굿센개를 파견보내여 해와달을 끌어가라하나 워낙 인간세계와는 상거가 머엇만리나 떠러저잇는 까닭에 아모리힘이세고 큰개라도 해나달에까지와서 험석을고서는 그만기운이지처 너머진다는 말이잇습니다。이것은 일식(日蝕)이나 월식(月蝕)에대한 일종우화적(寓話的)전설이지만 이러한 맹랑한전설로해서 불행히도 인간세계의 개까지 이날하로를 못어더먹게 만듭니다。

다시말하면 정월대보름날개를먹이면 개가기운이나서 해와달을빼끼게 될가하는 공포에서 나온일로 보겟습니다。

그런데 산해경(山海經)이라는 옛책에

『서북극건방(西北極乾方)촉룡세계(燭龍世界)가 잇고 그안에 일목국(一目國)이라는 나라가 잇는데 그세계에는 일월도업고 거기사는사람들은 눈이외눈이란』

는 전설이잇는것으로보아 혹시『어둑나라』라는것이 이일목국(一目國)을 가르친는것이나 아닌가 하는말도잇습니다。

이상에서본바와가티 사람이나 가축(家畜)이나 정월보름날은거의다소극적병마퇴치(消極的病魔退治)가아니면 적극적 건강증진(積極的健康增進)을 목표로삼는 년중행사(年中行事)인것으로보아『옛날에어』 지혜로운 위정가(爲政家)가잇서서 이날을 요새말로『건강데이』로정하고 전국민의체력양성(體力養成)과 건강증진을 고조(高調)식히라는데서 이와가튼 수단을다하게된것이나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저는파란(波蘭)의『쏘ㅣ콜』운동은 말할것도업고 독일이나 미국의『하이킹』열 일본의 유도 격검 이모든것이 무엇을 뜻하는것인가 다시한번생각하고 십습니다。

京城女子基督青年會主催
第五回 洋裁縫講習會
三月一日부터七日間 (自午後一時 至午後五時)
場所 京城女子基督青年會舘 (야주개전차정류장압)
講師 李在淑氏 『會費五十錢定員五十名』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探偵小說

假想犯人 (15)

金來成 作
鄭玄雄 畫

運命의岐路 (五)

불란은 그때 자기가 유숙하고잇는『장호단 아파ㅡ트』를향하여 본정거리를 거처서 거리를 한거름 두거름 옴겨놋키를 시작하엿다。그러케도 번화한본정거리도 사람의발자취가 점점 드물어가고 때때로 끈는게다소리가 휙휙 부는바람가운데서 따르랑따르랑 들려온다。

불란은 외투주머니에 너흔두주먹안에서몽란의어여쁘고도풍부한몸뚱이를굿세게 포옹해보면서

『몽란은 내것이다! 몽란은다시 내것이 되엿다!』

하고 불러보앗다。그러면 그럴수록 몽란에 대한 연정이 불떵어리 가티 이러나서 잠시 헤여진 몽란을ㅡ내일 또다시 만날 몽란을 아지못할 누구에게 영원히 빼긴것가티도생각되엿다。

『만일 몽란이가 또다시 나를 차버린다면 칠년전 그때와 가티 나를 또 배반한다면ㅡ』

그것은 생각만 하여도 너무나 무서운 일이엿다。칠년전의 불란은 아직 어렷다。따라서 그의 연정은 채 타지못한 장작과 가티、바람이 불다머즈면 스스로도 꺼질수가 잇섯든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불란은 그러치 못햇다。탈대로 타고 필대로 핀 그의 가슴、그리고 아직 재가 되지못한 그의 정열ㅡ

『연애 테로리즘!』

그는 그때 그러한 조어(造語)를 스스로 지여서 불러보앗다。그는 지금까지 연애에잇서서의 테로리즘을 야단이라고 불러왓다。

『그러나 그것은 관렴(觀念)의 리상ㅡ책상우에서 생각하든한개의 관렴에 지나치지못한다。인생은 관렴이 아니고 행동에 연속이다。사랑은 아깝지안케지기를 바치는것이 아니라 아깝지안케 빼앗는것이다。그것이비록 야만일지 몰으나 진실한사랑의 자태에 틀림이업다。』

불란은 그러케생각하면서 갈지짜거름으로 허둥지둥거려갓다。원편쪽의기점에서는『이즈시면실허요』가 성적매력을 가득이 싯고 거리로 흘러나온다。

『에이!』

하고 불란은 구두끄트로 돌을한번 톡차면서 중얼거렷다。

『인생을 굵게!그리고짧게!』

또 한거름 거려가서는 변사목소리로

『드디여 동·호세는 칼멘을 죽엿다! 보라!동·호세는 사랑의 용사이엿다! 칼멘! 칼멘!요부 칼멘! 내게서 혼을 빨아내고 피를 짜아낸 요부 칼멘! 바더라! 바더라! 내 칼을 바더라! 내 총을 바더라!』

그러고는『호호호』하고 한번 우슨후

『아아! 황금과도가티 찬란하고 꼿과도가티 어여뿐 호세의 말로요!죽여라!죽여라! 나를 배반하는 몽란을 죽여라! 하하하하、핫핫핫。』

술기운에 잔득 마비된 유불란의 정신은 것잡을수업는 탐미(耽美)의 세계로 끗업는 로맨티시즘의 세계로 기피기피 들어가기를 시작하엿다。

그때 불란의 발머리는 누가 부르는듯이 책방『선영각(鮮映閣)』안으로 비틀거리며 드러갓다。별로히 책을 사려고 들어간것은 아니엿스나 태산가티쌔노흔 서적을이것저것뒤적거리는 것이그의버릇이며또한취미엿다。

불란은 한참동안 이리저리단기면서 이책저책 뒤적뒤적하여보앗스나 별달리 신통한책은보이지안허 그만 밖그로 나갈까하고 생각한 바루 그때엿다。

유불란은 자기 오른편에 써늘한 찬바람과 함께 들어온괴상한 남자를 하나 발견하엿다。

중절모를 푹 나려쓰고 커다란 마스크로 입을 가리운남자를ㅡ

불란이가 그 남자를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것은 그가 마스크로 입을 가리우고중절모를 남달리 기피 나려썻다는것만은 결코 아니엿다。왜그러냐하면 유불란 자신도 중절모를 푹 나려쓰고 입에는 역시 커다란 마스크를 대엿든때문이다。아니 오동지섯달 추운때라 서점안에서 책을보고잇든 손님들은 태반이 다 대동소의한 복장을하고 잇섯든때문이다。

불란이가 견딜수업는 호기심을 가지게된것은 결코 그의 복면때문은 아니엿다。

몸보양이되고 病이곳낫는
生命元素가 發見되엿다

神仙不老草를찻든 여러분! 世界醫學界에서 최고치료약으로 共通승인된『有機性고로이도옥도제』로 늘 不老回春의 기쁨을어들수잇게되엿습니다

어느분을 물론하고서 無病하게 오래살어 충분한幸福과 깃업는 도취와 享樂의꿈을 맛보며 一平生을 의의잇게 맛치자는 원한이 共通된人情일것입니다。

그러나 人生의압길에는 여러가지의파란곡절의 장해가 만이노혀잇지만 무엇보다도 몸이 튼튼치못해서 그希望과 目的을도달치 못하게되는 수가 종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몸은 건강하다고 밋는분이 만흐나『世界文明이 발달될수록사람의몸은 점점 약해진다』는 말과가티 어는절에 병균이 침입되야 정신의활동력을 약하게만들고 드듸여 人間의本能인 성욕까지 소멸식히며 苦惱하는사이에 一平生을 病苦로 신음케 만들어주니 그런비참한일이 또 어데 잇겟습니가??

生命元素란무엇인가

하나의 生物이 생명의 존속(存續)을 위하야 싸우는 노력과정신은 참으로 굿세인것이 이노력과 본능을 깨닷게되시는때에는 健康의創造도 하실수잇스며 고질이된 병환도 곳칠수잇습니다 그러나 살아나가자고 굿세히 싸워가는 生命力만가지고는 사람몸에잇서서 참된 큰힘을 全的으로 발휘치못하게됩니다 즉 우리들의 육체속에는 여러가지의 기관=臟器가잇서 이것이 生命神經系統이라는것의 지배를바더가면서 사람을 살게하고잇는것인때문에 이두가지의 힘이 굿세히 될수록 不老長壽케만들어줍니다、그러나 이生命神經系統이활동하기에는 內分泌作用(호르몬)이 밀접한 관계를매저야만 충분한 활동을하게되여서 우리들을 더욱 건강케하여주며 모든疾病을 곳처준다는것이 오늘날의새로운 醫學과生理學、生化學界에서 리론상으로 實際上으로 증명되고 잇는바입니다。

그리하야 이內分泌作用(호르몬)이 사람몸에 가장 귀중하며 그重要性이 명확하게되자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甲狀腺의內分泌(호르몬)속에 지금까지에 類例업는 異種元素ㅡ옥도(沃度)가 含有되여잇는것이 발견되야 이甲狀腺의沃度가 內分泌機能을가진 諸臟器에는 물론이요 生命神經系에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作用한다는것이 명확하게되엿습니다。

그럼으로 沃度가 甲狀腺內分泌作用에 절대 必要한成分ㅡ즉 生命元素인것을 여러분도 잘 아르섯슬줄밋습니다。

그리하야 生命元素가 沃度元素에잇는것이 發見되자 수만은 沃度劑(無機沃度劑)가생겻스나그것을 처음으로 有機性고로이도 沃度化식힌것이 萬病治藥으로世界에승인된『네오스·에ㅡ』(NEO S.A)입니다。

그러므로『네오스·에ㅡ』는 몸을근본적으로 뜨더곳처주는 神仙不老草이며 첫재로精力을 벅차게회생식혀줍니다。

네오스에ㅡ는어더한藥이기에 神仙不老草와가튼가

최근의 世界醫學界에서는 가장 효과잇는 치료법으로써 沃度劑를 사용하야 치료하고잇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치료약은 알흔 그局部에만작용하는것이엿스나 沃度는 그환부에는 물론이요 全身에 작용하야 모든증세를 다스르고 병화근의 뿌리를 모조리 빼버려서 몸전체를 根本的으로 튼튼하게 뜨더곳처주는 훌륭한 藥理作用과 生化學的作用이 잇는까닭에 治療劑의最高를 점령하고 잇습니다。

그리하야 生命元素가 사람몸에 꼭필요하다는것이 명확하게되자 그生命元素ㅡ沃度元素가 海藻灰中에서 발견되엿습니다

재래에 발견된沃度劑ㅡ즉無機沃度劑의 결함과 위협성

지금까지 발견되엿든 沃度는 單體沃度라하야 그성분이 너무 劇性이기때문에 약용으로 사용치못하고 다만 그것에『가리움』또는『나도리움』을 化合시켜서『옥도가리』(沃度加里)『沃度나도리움』이 製劑되야 應用되게되엿스나 그劇性을 순하게하랴다가 그藥效까지 稀薄하게한것이 在來에單體沃度ㅡ즉 無機沃度劑입니다 그러므로 世界醫學界에서 研究거리이엇든 單體沃度의 劇性을 업새고 그沃度本來의 (즉生命元素)作用을 全的으로 發揮할수잇는 有機性고로이도 沃度가 世界的發明完成되엿서 萬病遍治藥으로世界에일홈이놉흔最新沃度劑『네오스·에ㅡ』입니다

네오스、에、一粒의沃度含有量은昆布의千五百倍이다

우리 조선사람은 太古때부터 미역、다시마가 몸에 조타고먹어왓스니 그것이 進步된 科學으로 증명되엿스나 이와가튼 常用食物에서 攝取되는 沃度는 藥用이되지안코 다만 生理的沃度分의 보급에지내지안습니다마는 有機性 고로이도沃度劑『네오스、에ㅡ』는 沃度가 바다물과 海藻中에 含有되고잇는때와가튼 오화한 상태로서 자못 大量으로濃縮되어잇슴으로 한알(一粒)에 含有된 有機性沃度量은 昆布의 千五百倍ㅡ昆布의폭(幅)五寸 길이 五尺에相當함으로써 沃度本來의 藥效가全的으로發揮되어서

一、體內에잇는 毒素를 모도排除하고 피를 정하게하며
二、新陳代謝機能이 敏活하고充분이 亢進되며
三、綜合『호르몬』의 分泌를 增進식혀서 몸全體의機能을 促進케하야 生命과 健康을 守護하고 强化식히는

三大作用이 적극적으로 發揮되는약임으로

疾病治療에一日三粒
健康增進에一日一粒

이면효과를엇는약입니다

……●●●……

結核疾患(폐병일절)肋膜炎(늑막염)動脈硬化高血壓、精力減退(보음보양)虛弱體質(허약체질)만성위장병、적、천식、불면증、신경쇠약、유전매독、장부매독에 특효가잇사오니 하로밧비 병고에서버서나십시려분은조곰도주저마시고시급히하여서근치하여주십시요

네오스、에ㅡ약가
小 瓶 一圓八十五錢
一〇〇粒 四圓三十錢
네오스、비ㅡ(小兒用)
小 瓶 一圓二十五錢
一〇〇粒 二圓八十錢
靜脈注射用도잇습니다

여러분! 꼭 [illegible]하다고 밋는분이 몇분이나 되십니가? [illegible] 命元素가 업서진것을 [illegible]으고 일즉 늙는[illegible] 탄하며 원만히 享樂과 도취의 꿈을 꾸지못하게되야 번민하시나니속히 보충식혀주서야 됩니다……

일어버렷든生命線을血汗으로
開拓한體驗記

네오스●에ㅡ는 三神山의不死藥이다

鳥致院七區 朴泰福

本人은 昨年가을까지 시골官吏로 원래 건강체라 감기도 걸닌일이 업섯습니다 昨年여름에 우연이 설사에 걸닌것이 오래가게되야서 卅餘日이상을 缺勤하게되엿습니다 本人의 家族은 六人이오니 本人의勤務로 生計를 도읍는 처지인만큼 곳 여러가지약을써서 치료를하엿스나 설사도낫지안코 몸은몹시 쇠약하여지며 구미가 떠러지고 약을먹으면 모도 토하여버리게되고 진땀을 흘니게되며 기침이나고 담이나오게되엿니다 그리하야 생각다못하여 官職을사직하여서그退職金으로 最後의치료를할예정으로 旅館에들엇습니다 그리하야 그날밤 旅館主人과이런약이 저런약이 이론하든곳에 本人의병세를이약이한즉主人이무슨약을 권하여주기에 이튼날入院할豫定을 밀우고 三日服藥을하여본즉 意外에도 자는동안에 흘니는진땀도개이여가며기침 담이개이여가는데에 데탄복아니할수업습니다 그리하야 이것으로 꼭낫겟다는 靈感을어든本人은약일홈을 물은즉『네오스에-』라는것을 처음알엇습니다그리하야 곳藥房에서두 瓶을사서服用한결과이가티 蘇生하게되오니 六人의家族도이제는 蘇生의途中에잇게되엿습니다 여젓支那에 어느王이 三神山에不死藥을求하엿다는 이약이가 잇습니다마는本人의게는『네오스·에-』야말로 三神山의 不死藥입니다

栗谷先生小傳 (五)

湖岩

栗谷과東皐

政治上의栗谷을 말할때에東皐李浚慶을 저절로聯想하게된다。

宣祖初에 東皐의 遺箚로해서 栗谷의彈劾이 일어난것은 너무나 有名한 일이니와 世人으로서 栗谷의失手에 돌리는이가 잇스니或은 그럴는지도 모른다。

五百年間에 한번잇는 相業으로 第一人이오 한번잇는 儒臣으로 第一人이어늘 이두분이 서로 合하지 못한것은 무슨까닭인가。

政見上差異도 勿論잇섯지만 性格上相差異로 두리 생긴衝突이 적지안햇섯다。

栗谷은淸明하고 東皐는莊重하며 栗谷은 通古今達事理하는 靑年儒臣이오 東皐는 持大體鎭物望하는 老成宰相이다 栗谷은 언제나 事理를 말함에 反하야 東皐는 반듯이體統만 차젓다。東皐가 한번은 宣祖御前에서 朝廷이 맛당히 體統을 직혀야할것을 말하매 栗谷은 事理만 올흐면 體統에 拘碍할것이 업다고 反駁하엿다。그後에도 栗谷이 經筵에서 乙巳士禍問題로 東皐의말을 模糊하다고 두번재꺽것다。栗谷은 東皐의 너무나謹統찬는것을 窓亢自高하다하야 滋味업게생각햇다。일즉 栗谷이 吏曹佐郞이되엿을때 首相으로잇든 東皐를 차저갓더니 東皐가 栗谷다려薦譽을 아니가지고 왓다고 栗谷에게 退去를 命하엿다。이것을보면 東皐의 頑固가 어떠함을 짐작할것이다。설령古規에 吏曹郞이三公께 보일때에 薦譽을 佩用하는例가 잇다하야도 栗谷가튼賢士에게對해서 이처럼 待遇하는것은 不可하다。

어쨋든지 栗谷과 東皐는 그때 新舊思想의 代表的人物로 傳統的尊重主義와 栗谷의 創作的尙主義와 서로和合될수업는것은明若觀火이다 그러나 東皐가 性格上主義上 相左로 말미아마 가끔衝突이 잇섯슴에 不計하고 乙巳士禍의 寃枉가튼國家正名의 大事에 이르러는 栗谷과 東皐가 同力協濟하엿스니 여기서靑天白日에 比할만한 兩賢의 公心을 볼것이다。栗谷이 東皐보다 三七年의年下라 栗谷이 明宗末에 初出仕할때 東皐는 벌서老宰相이엿섯고 栗谷이 宣祖의信任을 바들때는 東皐가 이미他界人이 되엿스므로栗谷의成就를 보지못햇다。栗谷의 全貌를 보지못한 東皐인만큼 栗谷에게 對해서기픈理解를 가지지못한것은 또한自然의勢이어니와 만일 東皐로하여금 十餘年만 더生存하엿더면 栗谷에 關한 認識이變하리라고 밋는다。그리고 栗谷도 東皐에 對해서『浚慶之將死, 其言也善』이라고 稱歎하던 最初의 觀念이 그後에차차變하야 東皐가 四朝老臣으로 一國質相임을 確認하엿다。

다만 眼空千古한 栗谷의高眼으로 東皐를 볼때 經濟의 才가 不足함을 말한것은 또한理由가 업는바 아니다。栗谷으로서는 그러하지 안흘수가 업다。

貧困과文學

―現代朝鮮文學의斷片的模索―

③ 崔載瑞

教訓과諷刺

前回에 안즌뱅이 文學이란말을 旣往썻스니 다시한번 이無禮한말을容恕하야주기바란다。안즌뱅이文學의 가장 表面的인 病症은 讀者牽引力의缺乏이다。다시말하면 기쁨의意味에 잇서서나 엿튼「意」味에 잇서서나 興味가 虛脫의狀態이다。나는 過去의 만흔貧困文學中에서 이興味虛脫症을 버서난 두篇의創作을 읽게된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잇다。그것은 蔡萬植의『明日』과 金裕貞의『따라지』이다。

이두作品은 다가티 智識階級의 貧困을 主題乃至 材料로삼으면서도 그效果에잇서선 判然히 다른두種類이다。다시말하면 가튼貧困을 材料삼아 어느程度까지 讀者를 끌고나가나 그끄는 힘의性質이 다르다。하나는 教訓의힘이고 또하나는 諷刺의힘이다。蔡萬植의『明日』은大學을 나오고도 職業이업서 굶기를 먹기가티하는 主人公의悲慘한 夫婦生活을描寫한것이다。우리는 主人公의 苦悶과 가엽슨 그안해의 苦生사리에도 퍽으나 끄을리지만 그보다도 이悲慘한 生活을 通하야 主人公이 어든 教訓―땅을 파라서까지 大學工夫를 시킬必要는 업다는 平凡한 教訓이다。이것은 常識에 不過하는 教訓이나 教訓은 平凡하다고 그價値를 減하는것은 아니다。問題는作家가 「常」識的인教訓을 어떠한方式으로 提示하느냐 함에 달렷다。

蔡氏는 어린애를 普通學校에 入學시키는問題를中心삼아 아버지의 持論과 어머니의 本能的인 愛情을 서로衝突시키고 鬪爭시킴으로서 그의教訓提示의方式으로 삼엇다。自己過去에 쓰라린 經驗을가진 主人公은 어린애를 學校에 넣을必要가업다고 어데까지나 固執하는것이다。이것은重大한 國事이나 그의원통한心事를생각하면 一面當然한듯도십다。그리고도 아모리 가난하기로서니 自己애에게初等教育조차 시키지못한다는것은 참을수업나는 어머니의 眞情도順坦히首肯되는바이다。이리하야 서로必然的動機를가지고잇는 두意見이 對立되고 鬪爭하는곳에이 作品의 教訓―업는놈은 그夫가出世의 길이아니라 沒落에의拍車가 된다는教訓이 힘잇게强調된다。그리고讀者의興味가 여기에 달려잇슴은말할것도업다。

金裕貞의『따라지』는 房房히 딴食口가 貰드러잇는 한채의집內部를 舞臺로한 一種의 笑劇的諷刺小說이다。「登」場人物을 紹介한다면 工場에다니는 누나의 밥을어더먹으면서도終日토록 册床을對하야 默默히 안저잇는 別名톨스토이라는小說志望家 愛情은가지고잇스면서도 性質이 괄괄하야 每日가티 그의동생을 복가내는 누나 肺病第三期에든 老父를 뫼시고 빼스껄노릇을하야 僅僅히 延命하야나가는少女 살갈을 희게하기爲하야 오줌눌때마다 요강에 손을넛는 가페女給A와 美貌를資本으로 退出後에도 제법버리를 잘하는女給B等等이 모두다 이집主人 마누라를 원수가티미워한다。그러나 그들에게 미움을 밧는老婆도 무슨大家主거나 資本家는 아니다。그도 亦是文明의 지쳐한 犧牲者이다。그러나

笑劇은 그와그들사이에 勞資相爭의形式을 가지고 展開된다。終始默默히지내는 톨스토이는無抵抗主義를 代表한다는것보다는 社會에對한 당 인디그네숀(沈默의憤怒)을 具現하는것갓고 아침에會社에드러갈때엔 依例히벤도보재기에다 『그무서운 낡은『雜』誌三四卷을 거퍼꾸려서 제법文學生보재기가티꿈여보히는빼스껄은的스노비즘을 諷刺한것일것이고 두女給의生活은 金錢과道德의關係를 暴露한것일것이다。

그러나 黃金濁流에몸을더럽힌 女給『아끼꼬』가운데서 우리는아름다운人間性을發見한다 그것은 톨스토이에對한 崇拜에가까운戀慕와 그의義俠心이다。作品後半의笑劇은 이아끼꼬가 主演俳優가되야벌여진다 第一착한톨스토이男妹를쫓처내려고 府廳고쓰가이나으리님을불러댓다가 아끼꼬에게 借房人에 總攻擊을 밧는場面은 위선爽快하다 더욱 氣勢不利하야 불려단巡査는 이作品의畫龍點睛이다。안즌뱅이文學이되기에똑알마즌 材料를가지고 讀者를이곳까지 끌고와다는것은 作者의創作的氣力은勿論그의凡庸치안흔手腕을말할것이다。大病痛의이고난이作家는 그와同時에 創作的으로도更生한模樣이다。祝賀할일이다。

北歐縱斷記 (一)

維也納에서 韓興洙

二十九日午前六時 우리列車는 마침내『모스크바』에 到着되엿다 爲先朝飯을 먹기爲해서 待合室(乘食室)로 드러갓다 豪華스럽게 設備하여노흔 室內의 椅子들은 모두 貴賓用이다 正面에『레-닌』像이 섯고 四面에는 胸像과壁畫가 만히 걸려잇다 여기서는 손님들이 飮食을 食卓까지날러다 먹는法 인데 나도 勿論 그대로 따라햇다 白衣를 입은 給仕員들이 잇기는 하지만 그들은 老人이나 幼兒나 或은 外國人에게만『써-비스』하는 모양이다 飮食으로는 茶 흘렙(麵包)牛乳、鷄卵 類等이며 高級料理는 보히지안는다 뎌움가지고와서는 茶와牛乳만 여기서사먹는 사람도만코 먹고는 그자리에서便紙쓰는사람도잇다 安樂椅子에서 말도코 자는사람도잇지만 한便에서는 滋味잇게『로-만스』를이야기하는 여러雙의男女들도보인다。

食卓이 모자라면 給仕員이나와서 자는사람을 깨이며 이러나달라고 請하는데 말끝마다 친네는 누구에게든지『타와리시취』(同伴者라는말)라고 먼저불른다。客이 給仕員을 불를때도 마찬가지로『타와리시취』라고 불르는것 이것은 여기서만 그런것이 아니라 車掌과 乘客間에도 警官과 百姓間에도 또는 商店이나 工場에서도 모두 그러케들 부른다。兵卒과 大將이 서로 만나서도 敬禮하는法이 업고 서로서로『타와리시취』라고만부르는데 이러한情景을 처음보는나는 더한層기픈 感慨를禁할수가업섯다

▲事實上『타와리시취』는 이나라사람들의 共通名이되엿다『先生님』『무슨公』『무슨상』『미스터-무슨씨이』『主事』『生員』等이러케 만흔 尊稱語들 그自身에 맛도록 골라서 부르지안흐면 안되는 우리 朝鮮의 生活과는 實로懸隔의 差異가잇다 確實히 이러한 稱呼의簡明性도 亦是統一된 生活의反映임이틀림업다고 나는생각하엿다

×

食堂門을 나오자 나는『모스크바』西部驛아페잇는 凱旋門을 바라면서 거리구경을나아갓다 門우에는 戰車를 모는 戰士의像이서잇는데 門은요란스럽게 큰것이여서 電車가 通해다닌다

西北에서 東南으로 通해진 넓은거리우에 이凱旋門이 서잇는데 이거리는 赤廣場까지 直通되여잇는것이다

거리의 이름은『꼴키-街』라고 불으는데 다시말할것도업시 昨年에 逝去한『쏘비에트』의世界的文豪『막심·꼴키』의 이름에 依한것이다 凱旋門에서 北行하면 市外로가게되고 南行하면『크렘린』卽 赤廣場까지 가게된다。元來一九一七年××난後『모스크바』의 市街가고처 建設되면서 全市가 螺旋形으로 둘린 面積의 거리로 區劃되게된것인데 中央點인『크렘린』에서부터 各方面을 向하야 큰거리들이 버처나가게되엿다

市의南方을 둘러서 흘러내리는『모스크바』江이편작이 가장 繁華한 部分인데 그여러 거리 中에도 이『꼴키-』街가 가장宏壯한것으로 重要한 建物들은모두 이거리의 兩便에로 竪立되여잇다 그래서『모스크바』에와서 몃時間 만게 머물지못하는 旅行者들은大部分이 이『꼴키-』街를 往復하고 가는것이 普通인모양인데 다시말한다면 西部驛에서『크렘린』까지를 다녀간다는것이다 그만하면 事實上『모스크바』의重要한 部分은 다본셈인데 이『꼴키-街』中에서도『푸-쉬킨』廣場北端부터가더繁華하고 볼만하다

×

大文豪『푸-쉬킨』의 銅像마진便으로 바라보히는 고딕式의雄大한 建物이 反宗教博物館이란것이다 帝政時代에는『스트라쓰니야』修道院이라해서 希臘正教의 僧侶들의 養成所이엿든것이라고 世代가 바꾸어짐에따라 이建築의 役割도正反對로 變遷되고말엇다 建物內部를 들어가보면 氏族宗教로부터 出發하여 各種의迷信이 發展하면서 近世의 宗教를構成하기 까지의 全歷史 過程과 또各種宗教가 社會에 밋치는影響等을 說明하여노흔豐富한材料와 모두 近代科學의 힘을빌어 사람을 놀래이기에 充分하도록 施設이되여잇다 學生과 地方에서온 農民들이 熱心으로說明을 듯기도하고 手帖에적기도하는것이보인다 反宗教博物館 左側에잇는 新築九層의巨樓가 有名한『이즈베스차』(新聞社)인데 建物의便利에서도눈에 뜨인다

『푸-쉬킨』廣場 西南側에는『모스크바』新名物 메트로(地下鐵道)와의 入口가 通해잇는데 來年春頃에 全通할때에는 모두大理石을 使用하여 사람의눈을 부실만큼 훌륭하게 施設되여잇다。

『꼴키-街』를 다시南行하면『크렘린』城에 마조치게되는데 이거리에는『콤인테른』의 指定宿所라고하는『룩스·호텔』과『레-닌』研究院『텔레그라프』(電信局)等 著名한建物들이 솟사잇다。

哲學에의 現代的志向

哲學의復興과그意義 (5)

金基錫

『解釋하기爲한哲學』의 復興에 대한『超越하기爲한哲學』의復興 이것은 우리들의말로 바꾸어『哲學에의現代的志向』이라고 불러서 조타。이 哲學에向하는 젊은世代의 志向에잇서서 現代文化는 지금까지의 자기로부터 소매를 나누고 자기를 省察하는 立場인 哲學의 領野에로 歸還한다 哲學의復興은 어느意味의 哲學의超越 또는 止揚이되어야한다 우리들은 現代의學術、道德、藝術이 모두 자기를 反省하기爲하야 한결가티 哲學에도라와야 한다는것을 말햇다。그런데 哲學마저 자기를 反省하기爲하야 지금까지의자기와 갈러서지 안허서는안된다。지금까지의자기와 헤여저서 어떤 전연새로운자리에 나서지안허서는안되다。哲學이 어떠케 자기와 갈러서나。哲學이 어떠케 자기를 反省하게되나。現代의哲學이 거기에서 자기를 止揚시키게되는 한개의 새로운 立場 이새로운立場을 찾고못찾고 또그것을 직히고못직히는데 잇서서 哲學復興의 古典研究의 나아가 現代文化의 全運命을行程이 決定된다。

哲學은 무론 그자신의 領野를 가진다 거기에서 자기를 學아닌것으로부터 구별하게되는 것일까 科學이나文學 가른것이 그런데 이 哲學의領野란 어떤 文化의原野우에서 제각기 그자신의領域을 主張할때 哲學은어느구석에서 哲學自身의 領域을 차저야한다。맛당히 어느 한편 구석에 잇서야하고 또 잇슬것 가튼 哲學은 예전에는 神學에게 지금에는 科學에게 벌서 그자리를 빼앗기고만것일가 그러치안호면 哲學은 본대 그자신한개의 豫備領域으로서 새로운學이 이러나 자기자리우에 서기를 기다리는것일가。

哲學은 자기를 原理의學 根據의學으로 主張한다。一切의文化가 그자신의 原理또는根源에대한 기픈反省에도라올때 거기에는 그것이 압서 科學의領域 文學의 領域이엿슴에 不拘하고 한개의빗나는 哲學의 領野가 버러진다。

哲學은 말하자면 一切의文化의 밋바다에 서리운 어떤 深淵가튼것이 아닐가。學術이잇고 藝術이 잇고 道德이잇고 宗教가 잇고。이제 이것들이 자기스스로에대한 기픈省察에 드러설때 거기에는한개의反省의世界 理解의世界가 온다。哲學의領野는 진실로 이反省의 世界 理解의 世界에 지나지안는다。哲學의領野가 文化의 어느한갈래에잇서서가아니고 그全領野에 뻐처서構成되고잇슴을 보라。이러매로 哲學의 領野는 말하자면 領野아닌領野의意味를 가진다。領野아닌領野 여럿속에 끼여그것들과 비비대면서 자기를 主張하는것이아닌 그리고 여럿의 背後에서 그것을 싸고안하야 남을發見하는데서 자기를發見하고 남을建設하는데서 자기를建設하는 이 領野아닌 領野를 가지는데서 哲學은 새로운事態에依한 자기의喪失은커녕 도리어 그자신의久遠한 領域및 對象에 만나게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떤 한개의學이아니라 一切의學에대한 根幹으로서의學의學인 哲學의 理念및課題를외우지안허서는안된다。現代는 그자신 한개의 動亂의世紀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친다。現代의文化는 이動亂의世紀속에서 자기자신에대한 기픈反省에 드러가려는 한개의 세찬 志向에 몰린다。現代文化의 이새로운志向을 우리들은 아페서 哲學復興의事態와 아울러 생각해보앗다。現代文化의 自己反省은 哲學에대한 젊은世代의志向을 불러이르키에이르럿고 그리하야 어제오늘 소리가노파오는 哲學復興、古典研究는 이젊은世代의志向에 자어친 바만흔것이엿다。

現代의文化는 암만해도 자기스스로와 갈러서지안허서는안된다。現代文化의自己再建。이것은 단순한 哲學復興이 가저올바가 못된다。文化遺産의 傳承을 피하는 古典의研究가 그企圖에反하야 헛되追懷、그릇된註釋에 떠러지는 오늘이 아니냐。現代의 文化는이제 바야흐로 자기와헤여저야하는 자리에 다다렷다。자기로부터 남에게 옴겨갈때 거기에는 자기와의訣別과함께 자기와의邂逅가 오지안흘가。

現代의文化가 자기에대한 기픈反省에 드러서면서 한결가티 哲學에의 歸還을 보이는것은 어떤 전연 새로운자리에 나서려는 한개의 表情이아닐가。現代의 文化가 장차 거기에옴겨가려는 어떤 새로운자리는 그것이 現代의文化와구별되는것이 되어야한다。現代의文化가 그것을『남』이라고 부를수잇는것이 되어야한다。

現代의文化와 구별되면서 그것이 『남』이라고 부를수잇는것이란 어떤것일가。우리들은 이要求에 맛는것으로서 古代의文化、中世의文化를 생각해본다。그러나 現代의文化가 어떠케 저기에 옴겨가게될가。現代의 文化가 古代의文化、中世의文化가튼것을 繼承、包攝은 할시언정 現代의文化가 저기에 옴겨갈수는 업지아니한가。

現代의文化가 거기에 옴겨가려는 새로운자리는 그것이 첫째 文化가 되여서는안된다。文化인 한에서 그것은 진실한意味의『남』이 아니기때문이다。文化가 아닌 現代文化의 他者란 어떤것일가。그것은 먼저 文化의 地盤으로서의『生』이 되어야한다。특히 現代가 가지는『生』이되어야한다。

現代의 文化는 그자신의 地盤인 現代의『生』에 옴겨오지안허서는안된다。現代의 文化가 지금까지 文化에잇서서 자기를 세웟고『生』에잇서서 자기를 허러왓슴을 想起하라。現代文化의 全領域에 뻐처 새로운 歷史觀、새로운 世界觀의 소리가 노파지는것은 現代의 文化가 지금까지『生』에 대하야 바른 交涉이 업서왓다는것을 보여주는데 지나지안는다。

그런데 現代의 文化가 자기 文化로부터 남인『生』에로옴겨 온다는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自己喪失과함께오는自己回遇。現代의 文化는 文化에잇서서 죽으면서『生』에잇서서 살지안허서는안된다。

이 文化이니『生』이니란 어떤 構造및聯關을 가지는것인가『生』은 文化의地盤이요 文化는『生』의制約을 밧는 어떤意味聯關이라고 보여진다。우리들은이에서 一切의文化의領野가 그대로 곳 哲學의領野가된다는것을 말햇다。이제 이文化의領野 또는 哲學의領野를 에워싸는 한개의 크다란原野가 잇슴을 보나니 이것을 우리들은『生』의原野라고 부르려고한다。

金宗燦個人展會協

科學

홀-몬-漫-議 (一)

그效用과研究의成果

李鶴松

近者에『홀몬』이라는말이 世間에流行되야 世人의 關心을 非常히 끌고잇다 勿論이『홀몬』은 醫學界에서 興味의 焦點이되여 巨大한 研究費와 勞力을 이研究에 傾注하는 一方 이에對한 學說이 究明된것은 疾病의治療乃至 豫防에 應用할만한 階段에 이르게되엿다 實로 躍進의 步武를옴기고잇는 醫學界의 한가지光輝잇는 業績이다 最近 數年에이르러는 醫藥에應用될뿐만 아니라 所謂『홀몬·크림』이라는 化粧品製造에 應用이되고 東京帝國大學正門아페 새로 집(야기도리야)에가면 鳥類의 子宮卵巢等을 불에구어 이것을『홀몬』榮養食이라하야 比較的 高價로 一般에 供給하는데 需用超過로 恒常 供給難에 빠지는 現象을 보게된다 이와가티『홀몬』에 對한 關心이 큰것은 만히 醫學的 認識이나 過大한 期待에서 비롯한것이나 或은 盲信을 비저내기쉬운 傾向을 가지고잇나 醫學或은 醫藥에 從事하는사람에게는 업겟지만 一般世人들中에는『홀몬』이라면 萬能의 藥으로도 認定하는이가적지안타 이것은 多少 誤認된 認識이다 生殖腺에서 나오는『홀몬』卽 性『홀몬』도 勿論『홀몬』이지만 性『홀몬』外에도 여러가지『홀몬』이 잇다 甲狀腺에서는 甲狀腺『홀몬』 腦下垂體에서는 腦下垂體『홀몬』 副腎에서는 副腎『홀몬』 膵臟에서는 膵臟『홀몬』 睾丸에서는睾丸『홀몬』 卵巢에서는 卵巢『홀몬』을 分泌한다 이밧게도 여러가지『홀몬』이잇다 最近에 이르러서는 身體各臟器에서 各各『아오도호몬』을 分泌한다고 하게까지 이르게되엿다 이러케『홀몬』이라는것은 多種多樣임으로 各『홀몬』에 對하여 一一이 說明하기는 어려운일이다

古代 或은 現代民間에도『홀몬』과 類似한 思想이 잇섯던 것은 여러곳에서 散見할수잇다 古代로-마에서는 劍奴의 血液을 癲癇治療에 使用하엿고 佛蘭西革命時에 斷頭臺에서 흐르는 國王루이十六世의 血液을 周圍에 모엿든兵士들이 서로다토아 手巾 或은 컵에바더다 혹은 南洋土人은 人血을 먹으면 그사람의 精神이自己몸에옴긴다 하며 사람의生血을 질겨마신다。東洋에서도 中國에서 사람의 生血을 體力을 强하게한다하며 特히 處女의 머리를 벨때에 流出하는 피를 中國人들이 饅頭에 뭇처두엇다가 여러가지 疾病에 쓰는일이잇는것은 安東縣近方에 사는사람은 往往히 보는일이다。그밧게 中國에서는 處女의 最初月經의 經血로 製造한 紅鉛을愛用하는 習慣이잇섯다한다 우리 朝鮮에서도 牛血 鹿血을 먹으면 疾病에 利하다하며 父母가 重한病으로 呼吸困難이 되엿슬때뿐아니라 生死之境에 瀕하엿슬때에 子女의 斷指한 指頭에서 흐르는 鮮血을 氣息이 奄奄한입에 떠러트려 父母의 回生을 바라는일이잇다

옛날希臘에 올빼미(梟)腦를 頭痛에 使用하엿고 朝鮮에서도 頭痛、記憶力減退、神經衰弱等神經系統의 異常이잇다고 認定할때에 牛腦를 쓰는일이잇다

뉴기니아土人은自己의視力을 强하게하기爲하여敵의눈(眼)을 빼여먹는일이잇다하며 朝鮮에서도 夜盲症에 肝臟을먹으나 그外에 올빼미눈을 먹는일도잇다한다。

希臘에서 牡馬 鹿角 睾丸을 補陰劑로 쓰고 中國에서도 이와가티 動物의 睾丸을 補陰劑로 使用하엿스며 朝鮮에서도 陰莖睾丸을 强精乃至 補陰劑로 使用하엿스며 家犬의 陰莖 海狗의 陰莖은補陽劑로쓴다。

歐洲에서는 옛날 胎兒의 心臟은 사람에게 超自然的力量을 賦與한다는 迷信이 잇고 로-마에서는 牡馬의 胎盤을 乾燥하며 媚藥으로 使用하엿고 中國에서는 產兒의 胞衣로 製造한 紫河車라고하는것을 珍重히 여기며 朝鮮에서도 胎盤을 虛弱한사람의 補劑로 쓰는일이잇다。

中國 諸思締은 사람의 膽은 술과가티 毎日먹어 千個에 達하면 그勇氣를 當할사람이 업게된다고 말하며 酒宴이잇슬때에 數百의 사람을 죽엿다한다 그밧게 狗膽은强壯劑로쓰고 朝鮮에서 重病에 걸린사람이 그病을 治療하기爲하여 사람의膽을 取하엿다

그外에 다마다族은 自己의 勇氣를 내기爲하여 敵의心臟을 먹고 希臘에서는 肝臟病에는 動物의肝臟을 肺臟病에는 狐의肺臟을 呼吸困難에는 牛의 眼球를使用하엿다한다。

이와가티 民間에서『홀몬』이라는 名稱을 부치지는안핫스나 現代科學이 實證하고잇는『홀몬』學說을 不知不識間에疾病의 治療 乃至豫防에 應用한것을 볼수잇다 이것은 우리祖先의 長久한 經驗에서어든 事實이며 이事實이 現代科學者의 손에서 다시 具體化하며 그根據를 더욱 鞏固케한데 不過하다하겟다。그럼으로 民間에 行用되는 여러가지 療法中에 우리 科學者에게 有利한『힌트』를 주는것이 아직 더잇슬것이며 또科學者의 손으로 그의 功罪를 어느程度까지 발켜民衆을 指導하는 意味에서도 民間療法을 雲梯適限할수는 업스리라밋는다

學生作品

常住의世界 (五)

二論文二

中專 鄭璡

無常을 슬퍼하는마음은『하나』에로의마음인데 反하야 變化를 즐기는마음은『여러』에로의마음,『여럿』에서의 마음이다。우리는이『여럿』이되는 現象界에 서서『하나』를찾고『하나』를 憧憬하야 마지안는다。이것은곳이 無常『變化』의世界에 안저『여럿』에서이리저리轉換을 거듭하면서 常住의世界·움즉임이 업는世界, 永遠한安住의 世界를 戀慕하야 마지안는 마음을 뜻한다。變化를 즐기는마음은 그自身『여럿』우에노힌것과가티 우리의, 常住를 찾는마음이 우리에게 잇슴은『하나』의實在性을 如實히 證明하는것外에 아무것도아니다。우리는『하나』를 밋고『하나』를 찻는다。우리 渴望의 的인 常住의 世界도 이와가티 우리를 차저주리라。

無常을 슬퍼하는일은 變化를 슬퍼하는일곳 有常을 즐기는일이며 變化를 즐기는마음은 無常을즐기는마음곳 有常(無變)을 슬퍼하는마음이다。그러나 아무가지 마음이 남의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람의것임을 보라。우리의 이 無常을 슬퍼하면서도 또 즐기고 有常을 즐기면서도 또 한 슬퍼함을 보라。

無常을 슬퍼하는마음은 有常을 즐기는마음인限에서 그리고 有常을 즐기는마음은 同時에우리에게잇어서 有常(無變)을 슬퍼하는마음인限에서 곳 無常을 즐기고 變化를 즐기는마음이된다。그리고 有常을 슬퍼하는마음인限에서 그리고 有常을 슬퍼하는마음은 同時에 우리에게 잇서서 有常을 즐기는마음인限에서 곳 變化를 슬퍼하고 無常을 슬퍼하는마음이 된다。

即 無常을 슬퍼하는마음은그대로 變化를 즐기는마음이며 變化를 즐기는마음은 그대로 無常을 슬퍼하는마음이다 곳 無常을 슬퍼하는마음과 즐기는마음은 하나다 換言하면無常은곳有常이며 變化는곳 無變이된다。矛盾인듯 하나이며 하나인듯 矛盾이며 矛盾이아닌듯 矛盾이며 矛盾이아닌 이 참스러운 얼골 우리는 여기서 眞理는곳 矛盾에 잇슴을 배운다。矛盾인듯 그대로『하나』인 이 眞理며 둘인듯 그대로『하나』인 이고장 우리는 여기서 참된 常住를 어더볼수잇을것을 밋는다。變即不變 不變即變인 境涯-變하는것이면서도 變하지안는것이며 變하지안흐면서도 變하는 참으로 變함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世界 모르는 한 世界를 차저가야할수잇슴을 無限히 기뻐한다。有常世界보다는 우리는 어대가면久遠한 安定을 엇는것인가。우리는 압서 無常을 슬퍼하는마음 이는 곳 有常을 즐기는마음 이는 곳 變化를 슬퍼하는마음임을 알앗다。우리에게 이가티 無常을 슬퍼하는마음이 잇슴은 곳 우리에게 變化의 存在함을 말하는것이 된다 果然 우리는 우리의 아페 展開되는 無變한變化의 現象 運動과流動의 世界를 읽고잇슴을 안다。그리고 우리가 다시 無常(變化)을 즐기는마음은 곳 有常을 슬퍼하는마음 이는곳 變化를 즐기는마음임을 보앗다。우리에게 이와가티 變化를 즐기고 變化를 바라는마음이 잇스며 自由를 우리에게 有常 無變의 絶對不動境이 잇슴을 反證하는것이 아니고무엇일가。果然 儼然不動하는 우리는 우리아페서 無變과 久遠을 외우고 하나의 無變을 안다。우리는 우리가 잇슴을 안다。이자리에서 우리의 이久遠을 否定하는가。

모도는 變하고 움즉이기만 한다고 가르치는이가잇다。變하고 움즉이는것만을 가려처 眞理라고 이르는이가잇다。그러나 變하는 그自體와 모도는 變하고 움즉이며 마지안는다는 그 眞理自體는 어제도 只今도 依然히 變하지안코 움즉이지 안코 잇슴은 무슨 까닭인고。

너머도 變함을 모르는『久遠』의 標化임을 어찌하랴。久遠한것을 미워하고 否定해 업새보려는일, 이것은 그에게잇서서 움즉이고 變하는 뚜렷한 事實마자 한거번에 잃어업새는 가엽슨일이아닐가 모도는 움즉이고 變하는것이라고만 욱여노흘때에는듯 變함과 움즉임은 다라나버리고 거기에업슴을 어떠케하랴。

움즉이는自體와및 사람이 가즌 움즉임에對한 眞理自體는 變하지안코 움즉이지 안는 하나의 絶對、『久遠』이 아닌가 變함과 變치안홈이 아울려잇는이가운데서 變하는것만을 찾고 變함이 업는것은 찾지못함이여-우리는 久遠한 實在로써의하나를 차저 갓기爲하야『여럿』을 어대까지든지 時間的 存在로 把握하려한다。(完)

今春各學校入學規定 ⑯

(但詳細는直接問議하시오)

寧邊崇德學校
▲募集人員 男子約五十名 女子約五十名
▲募集期日 三月二十七日까지
▲試驗期日 三月二十九日 三十日
▲試驗場所 本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補缺募集 男子部四學年補缺生若干名

中央基督教青年會學校
(中等科)
▲募集人員 約二百十名 (補缺生若干名)
▲申請期日 三月三十一日까지
▲試驗期日 自四月一日至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夜學英語科)
▲募集人員 五十名 (補缺生若干名)
▲申請期日 四月七日까지
(工藝科)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三月三十一日까지
▲試驗期日 自四月一日至二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圖畫

箕城醫院講習所
▲募集人員 本科七十人 速成科九十人
▲申請期日 四月七日迄
▲試驗日字(本科) 四月八日
▲試驗場所 同校

平壤醫學看護婦
▲募集人員 給費生二十名 私費生若干名
▲申請期日 三月十日까지
▲試驗場所 同校

光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三月五日까지
▲試驗日字 三月十九日부터二十五日까지
▲試驗場所 同校
▲試驗課目 國語 算術

正義女子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百十名
▲申請期日 三月十五日까지
▲試驗日字 三月二十一日부터三月二十六日까지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肌アレに大評判

구린신의二重作用으로거침을몰은다

(一)잘트가끼인皮膚에그대로化粧을하면効果는不充分하다 明色구린신、크림은가벼히묻혀며 닥거내는것뿐으로 그特有하고强力한 淸掃作用으로 皮膚의 深底부터 깨끗하게掃濁한다

(二)同時에獨特한美容成分이가장効果的으로作用을한다 皮膚가深底까지깨끗해짐으로、美容成分이體力 곳곳이充分이流通되여効果를 마음것나타낸다 이合理的二重作用!

普通크림보다三四倍나德用이다

手·腕のアレ防ぎ
洗濯、설거질을하는이의손이나팔둑은 거칠기쉬웁다。이러한이는 朝夕으로두번만 明色구린신을바르고、脫脂綿이나까-제로닥거낸다-이러케만하면아모리치운때라도손이나팔뚝이거칠지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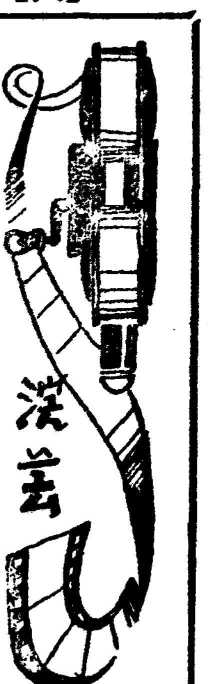
お子方の洗顔に
弱하고거칠기쉬운아기들의皮膚-洗顔은明色구린신에限한다溫水도물도全혀必要업시이 크림을若干문질느고 脫脂綿이나까-제로닥거낼뿐으로 얼골이深部에서부터어여뿌게되고 어떠한추위에라도 全혀거칠을모르게된다

おヒゲ剃り後に
面刀後에明色구린신을 얼골에바르고까-제나脫脂綿으로 닥거내면溫水나冷水로씻슨때보다 比較도못할만큼 얼골이深部에서부터어여빠지고 面刀자욱이생겨도皮膚는거칠게할念慮가조금도업다

家内中で使へます
明色구린신은 用途가非常히넓어 一罐만잇스면家庭에서 모도쓸수잇다

한겨울一罐
食口마다거칠을모른다

明色クリンシングクリーム
명색구린싱크림



提琴界의 巨匠 엘만의 것는 길

洪鍾仁

提琴의 巨匠 엘만을 들을수 잇슨것은 昨年『리보』의東京과 아울러 近來의 큰收穫이엇다 『엘만·톤』이라하야 거의偶像化한 그의入神의 妙音은聲論에 依하여果然稱歎을 禁치못하엿다. 壯重하고 優雅한G線·D線이 부드러운 餘韻을 가지고高音群을 감싸고 넘는均整된『톤』이 우리의 聽覺에울려주는安定感은 그를 들을수록樂器와 사람『엘맨』과의 渾合一體의 境地에잇는 神秘를느끼게한다。

그러나 어데까지나 完全히舞臺化한그의 演奏를보고『神技』의이름은 애끼지안코 보낼수잇스되 우리는 名樂器의 名作들과 曲의解釋(解說)의길은스스로 달은點이 잇다는것을느끼게된다 即엘만이 演奏하는 提琴音樂과 提琴을 通하여차즈려는『베-토-벤』과의사이에는 얼마만큼의 距離가잇슴을 알수잇섯다。

그러고 演奏家 엘만의『엘만·톤』과 그神技는 언제까지나우리를 滿足의 絕頂에 둘수잇슬것이냐 하는것을 생각 귀를滿하나 베-토-벤音樂의思想的內容가 빠진은 直感的으로 論斷키 어렵지안타고밋는다。

다음에『멘델스존』의『콘첼토』의 技巧的인 華美한것에는 오히려 幅과 기피에 잇서 그의技術的話譜이 自在한 得意의場面이엿슬수잇섯스나 亦是綜合우의 神技神音의 燦爛속에 나타난 『엘만』의 英雄的存在가 倍勝함케한다。다시말하면 時代的의複雜과 混沌가운데서 새로운生活的要求와 理想가운데 苦悶하고잇는 우리는 神技에依한 神秘感난에 滿足하려하기보다는 보다더 各個의 音樂藝術(曲)을 通하여 生活的內容의 再現이 要求되고 잇는것이다.

첫재『크로이처·소나타』에서,若雖의 生活에서 苦惱를버리고奔放의 生活로 强行軍의第一步를밟는『베-토-벤』의第二期的作品의 迫力을 찾기에는너무나 歌謠風인 甘味에 多少嫌惡를 느끼지 안흘수업섯다 獨逸的인 演奏가 어떠냐하는것은 村生眞으로써 斷言을讀수잇섯다고野生的인激情한新鮮味는 다음의 問題에 屬하는 感이 잇슴을 봇수 잇섯다 그보다는『헝거리안 딴쓰』나『스패니쉬딴쓰』等 最後의禮演의『뷔니아우스키』의『모스크바의懷憶』等中의 舞踏曲의進行에 잇서 가장 生新한 情熱의 爆發이 如實하엿슴에 엘만의 眞面目이 鬱으고 잇지안혼가 시펏다。『헝거리안 딴쓰』에는 집씨的 熱情이 橫溢하엿다。『스패니쉬딴쓰』『지고이네르 와이젠』에잇서서는 집씨的 憂愁가운데 哀愁의 호름이 더 潤泉하엿다。『모스크바의 懷憶』에는 難澁한 複音과 하모니音에 醉伏과 悲壯의 感을 加하엿스나 民謠舞曲의 熱狂的場面은 亦是。엘만의 得意한것이가시펏다『슈만』의『豫言鳥』『차이코프스키』의『멜로디』等은 纖細 美麗한 技術의 極致를 보임에 다하엿슬뿐이다。

現世의 巨匠 엘만을 듯고나서 感嘆되는바 우리는 문득 그의 貫籍이 어데냐 그가 것는(步)는 藝術의 길은 어느길이냐 하는것이 뭇고시픈것이엇다。神技의『엘만』을 들엇스되『엘만』을 通하여 보여준『베-토-벤』其餘의 各個의 藝術의 生活的面目은어떤것이엇던가。演奏(技術과 精神)어시는 存在할수업는 音樂의 길에 잇서 다시금 생각을 거듭케할 問題일것이 겟거니와 整理못된 許多한 文化遺産과 어려운 時代的複雜性의 重壓가운데서 새文化를 探究하며 音樂을 通하여 우리生活面의 眞正한 表現을 希求하고잇는 우리로서는 듯는者나 音樂을 하는者나『엘만』의 길과는 스스로 다를것이라고 생각케된다。即 엘만의 것는길-歷史的傳統 時代的背景、集團의基盤을 떠나 音樂의 世界市場을 舞臺로 濶步하는 英雄的인 그의 길은 이미 늙은것이다。作奏者피아니스트『파드와』로 놀라운 名手이엇다。

—(二月二十四日朝)—

(사진은 엘만)

라디오

三月二日(火曜)

◇午後○時五分 첼로獨奏
一、協奏曲 D長調 第一樂章 알레그로 第二樂章 라르겟토 第三樂章 알레그로
二、만드리갈……모파-드作曲
三、歌謠曲……베르그호-트作曲
四、白鳥……상상作曲
五、스-브니르……드르들라作曲
피아노伴奏 淺原敏子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이야기(二)

◇同四時三○分 럭비試合實況 龍山그라운드 中繼放送

◇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뒷집할멈다가갈날二、"송주는라엽 三、獨唱 고드름(金淑景) 四、齊唱 집보는 아기노래 五、"고초장 六、獨唱 할머니노래 七、齊唱 새색시새서방 八、"겨울밤 九、"빗달길 十、"물망초의그늘 十一、"눈나리는밤
蓮洞幼年主日學校兒童 指揮 趙昌大 伴奏 朴奎媛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分 講演 金泰洽

◇同七時三○分 經典解說 法律의道德的進路 崔鉉瑢

◇同八時 歌謠 外 一、豐年歌 二、노들江邊 三、방아타령 四、금강산타령 五、하강수타령 六、밀양아리랑 權瓊蘭

◇同八時三○分 音律 靈山會相
玄琴 李彦禧 洋琴 李承煥 奚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趙撥湧 杖鼓 池龍九 細笛 崔壽成 大笒 金德鎭

◇同九時 野談『斷腸의팔찌』 金瀏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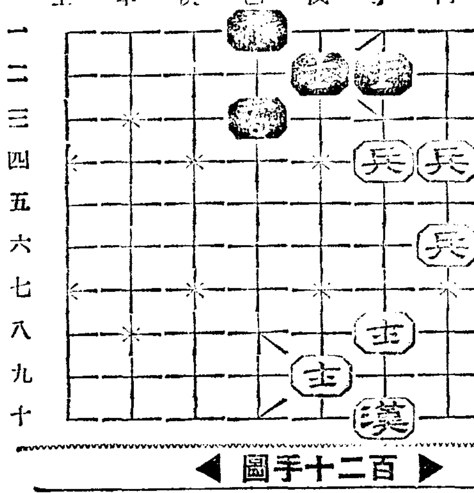
第一放送

◇同午後○時五分(東) 二胡琴
◇同六時(東) 이야기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分(東) 講演
◇同八時(札) 狐鳴聲實況
◇八時二五分(東、大)義太夫
◇同八時五五分(東)浪花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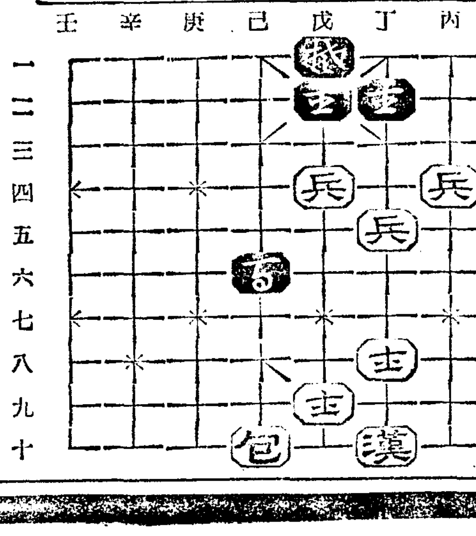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二十)

漢先手 李正鳳 楚 金復起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乙三包—乙五 空— 乙七包—己七呼將 己三象—戊一 丁四兵—戊四

己三象—戊五 丙六兵—丙五 戊五象—丁七 丙五兵—丁五 丁七象—己六

劇研十五回公演 무대뒤를살피니

황소배속에서 땀흘리는사람

쩔쩔매는키다리演出者 무시무시한狂女金福鎭

記者가 劇場-다。그런데 금번劇研公演의『[illegible]』 化粧室을 도라 舞臺上演中에 여기를 드려가 단이기는 여러서 눈이띄이는 대로 [illegible]해서 번이엿스나 대내기로 해보앗나 그러타하야 무개가 [illegible] 손物件을 훔쳐오는것이안이라여 그러치안흐면 무리가지 트리크와 어시수선한風 景으로아직까 보물을 잡아오기로한것이다 들 지劇研公演 어서는길로『小道具』를 살펴보 [illegible]은 업 니 아모도 업고 텅비엿나 무대뒤에 키가 유난히 큰사람이 어떤 [illegible]을 다리고수군수군하기에 그곳에 가서보니 演出者 柳致眞氏가 말둥이 金一英과 개똥이 李某를 다리고 다음에나가서할 臺詞와表情을가르키고섯다。그러던차에 저편구석에 섯사람한떼가 몰려나오는데 알고보니 [illegible]氏의 [illegible]人과 [illegible] 그중에 장사가 [illegible]氏 [illegible] 氏等이 한데 [illegible]어 서잇섯다。어데서 시골[illegible]가면 흔히볼 댕이[illegible]이 부르는[illegible]은 노래를부르며 [illegible]고 도라오는 女子가 [illegible] 게원잇친사람인가하고 記者가겁을내며 벌벌떨고잇스랴니 그女子는 연송 신이나는듯이 억개를주춤주춤한다 여페서宋在魯氏가 그女子와 무슨이야기를 하기에 하하잇친사람이라도 親하면 사람을害롭게하지 안는고나 하고 엽헤닥어서 보앗다 果然아무러치도안코 자기혼자 서코노래만 응응부르기에 效果 보[illegible]氏에게 무러보니 그이가바로 金福鎭氏라고한다 웨 무대뒤에서도 미친것처럼날뛰느냐고무르니 舞臺에서 하든미치광이짓이 그냥習慣으로남어잇서 서그러타고 하얏다 만은 그럿듯아 다 여기서 키가 큼직하고 얼굴이 히고두루막을입은 女子가 어정어정도라 단이기에 柳致眞氏에게 누구냐고 무르니 劇研 經理部에잇는 [illegible]氏라고한다 無台미테잇는化粧室에드러가보니 원村사람들이 十餘名안저서 裁判이야기를 하고안젓고한 여페서는 키가나속하고 얼골퉁퉁한 村거집애하나이안저 잇기에 그에는 쉬골[illegible]이 땅처를 귀엽게 생겻고나하고 이야기를 거러보니 생족해지면서 그냥다러나버린다 이애가 귀찬이라는 [illegible]양임을 나중에야 알게되엿다。

끄트로 舞台의트리크나 하나 도적질하기로하자!

무대우에 황소안머리가 잇는데인숭방울을 치면서 꿈울거린다 야-이놈괴상하고나 정말산 소를어떠케 모러다 매엿슬가하고幕이다친뒤에 드려다보니웬걸 허수룩한 사람둘이 소궁둥이로부터 기여나왓다。하하딴은그속에서 제대로 演劇을햇고나하고 숨이막히고답답 하지안트냐고무르니 가슴을내려만지며 머리에 몬시를턴다。苦生스러웟단말이다 만약오좀이라도 마려우면 어떠케하느냐고 무르니 드러가기前에아조·볼일은다맛치고 드러간다고하얏다。

말안섭가고 닥치는대로 해버리는것이 記者의 버릇이라여기에도 그例外는 도모지 업섯다 事實이야기거리가되자면 그래야만하기도 하지만……

(사진은 劇研舞臺뒤)

只今이…… 貴重한살결 美化工作에

優良한비누가 가장必要한때

봄이되면 살결이거칠어짐은勿論、여드름、부름이생기는것으겨울보다도오히려터심하여진다

皮膚健康을爲해 꼭!! 『牛乳』를!!!

優秀한特長 『牛乳』는婦人이나幼兒用비누로多年研究한結果牛乳를作用케하야만드른임으로얼기도잘일어지고크림과가티細少하게含有한牛乳성分이살결에直接浸透하야 살결을기르고美化식혀언제든지皆美를保有하게하는 效果를가지고잇다

美化하게하는 牛乳石鹼

부드러운婦人살결에理想的인美肌料 牛乳비누

本舖·大阪 共進舍石鹼株式會社

No. S 16

女性 三月号 特輯号 發賣中!

定價二十錢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二〇八

黃海道女性風景 咸大勳

職業이냐? 結婚이냐? 岐路에서彷徨하는女性 自己의個性을살니자 尹聖相

自殺 女性讀本 李殷相

特輯 女性自殺事件眞相

文孃의悲慘한最後 一記者

文孃의自殺과梨專의敎育策 R·H生

梨花專門明暗相 趙順伊

遺稿 내구두·落葉 故文呂淑

音樂鑑賞講座 金管

우리學校자랑 槿花實業學校

文人과一問一答 辛夕汀·朴慶浩·李軒求·金珖燮·朱耀翰·李孝石·朴泰遠·安懷南·李石薰·金裕貞·嚴興燮·鄭芝溶·朴基采·具本雄·鄭保羅·洪蘭坡·朴致祐·鄭權陽·金元經·金煥泰·許保·安浩相

一、장사를 하신다면 무슨장사를하시겟습니까
二、人島에서 平生을사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시겟습니까
三、얼골중에 第一自信잇는 部分이 어듸십니까
四、第一 보기실은곳은 업습니까
五、임이로한다면 한평생을 어떠케 살겟습니까

京城托兒所訪問記

家庭婦人과內職(特輯)

女性과家庭副業 孫貞順

市場進出內職品 鄭泰鎔

內職成功의秘訣 李惠媛

家庭婦人과問答
一、內職을 하자면 時間餘裕가잇겟읍니까
二、內職의 種類는 어떤것이잇읍니까
三、內職을 奬勵할方法은 업겟읍니까
崔以權·金鍾淑 宋今璇·任貞爀 張文卿·李敬媛 吳淑根·諸氏

母性愛群像 洪鍾仁

制服을벗으면서
△피아노를愛人으로삼겟습니다 梨專音樂科 金信福
△푸른잔듸에누어클러버를따고 中央保育 文李順
△달라진것은키와나이뿐입니다 京城保育 尹榮實
△우리 어린이를바른길로引導 梨花保育 李慶順

表紙……安夕影
扉畵·挿畵……鄭玄雄
畵報 卒業、京城女子醫專、中等學校卒業生、엘범、梨花專門音樂科、家事科、英文科、梨花保育、京城保育、中央保育、梨花女高、培花女高、進明女高、同德女高、貞信女學校、女子商業、槿花女子實業

家庭太平記 桂貞植氏宅

그夫人의一生(連載美談) 申鼎言

女學生、큐피(漫文漫畫) 林鴻恩

化粧品은맨늠시다 吳淑根

女性界消息 世界女性展望 內外珍聞 웃지마십시다

懸賞 『女性』二月號에發表한懸賞幸運의『크로스·워드』는規定대로四月號에當選者를發表하겟읍니다

詩
나의哀愁……金宗洙
당신이저의것헤……尹永春
이저버립시다……林春吉
處女……劉秉宇
새달종……馬鳴

隨想
待春譜 李源朝
人間論 金基錫
鄕土有情記·城川江邊의그時節 毛允淑

三月創作陣
中篇小說 코스모스피는庭園 李泰俊
長篇小說 안해(第六回) 安夕影
短篇小說 沈澱된砒素 林學洙
中篇小說 停車場近處 蔡萬植

厨房經濟와物價暴騰(時事解說) 韓普容

天然痘 釜山서大暴威
草梁町에서또患者七名發生
釜山署防疫에腐心

【釜山】부산부 초량정(草梁町)팔백삼십번지를 중심으로 부근일대에 천연두(天然痘)환자가다섯명 발견되여 부산경찰서에서는 대소독을하는동시 초량정일대에 검병조사를 지난이십팔일에 한계과 전기부근에사는 장종태(張鍾太)의 사남한종(漢鍾)(三) 윤용선(尹用先)의 집식모로잇는 정순덕(鄭順德)(○)리춘돈(李春敦)의장남 성명(性明)(二)리종필(李鍾弼)의장녀 자경(慈卿)(二)최종수(崔鍾守)의장녀 희성(姬成)(二)김영병(金泳丙)의 삼남 정렬(正烈)(二)리춘학(李春學)의 차남용섭(龍燮)(三)등칠명이 천연두환자인것이 판명되여서 곳부립병원에 입원치료케하는동시 동서에서는 서원을총동원하야 방역에대활동중이라한다

群山附近各島嶼 集配時間改正

【群山】군산항부근에 산재하야잇는 고군산도(古群山島)외각섬(島)에 잇서발착하는 우편물은 지금까지는 일정치가못하고 일개월간에 겨우 일회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개월만에 일회식밧게 업섯스므로 통신에잇서 만흔불편이잇던바 금번군산우편국(群山郵便局)에서는 일반거주민의편리를 위하야 삼월일일부터 좌기도서(島嶼)외에는 매월이회식은 집배(集配)하기로개정을 하얏슴으로 압흐로는 일반통신리용자에게는 만흔편익을주리라한다

入坪島、加乃島、內草島、飛雁島、與食島 每月二回

幼兒의大敵·痲疹 咸州郡에大猖獗
患者벌서二百餘名!

【咸興】함주군(咸州郡)내각면에는 거이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의 마진(痲疹)이 대창궐하야 벌서 그병에 걸린어린이가 이백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망자도 이삼십명의 다수에달한다고한다

이가티마진(痲疹)이 창궐(猖獗)하는 원인은 지난겨울의 기후가 겨울답지안케 춥지안코 이상하게도 미지근한 따뜻한긔후가 계속되기때문으로 이마진은 별별로 신통한 방역(防疫)할도리가업서 일반가정에서는 유일한 예방책으로 서로 래왕을끈코 잇슬뿐으로 압흐로 날세가 따뜻하야감에 따라서는 더욱폭위(暴威)를 다할것이 예상되며 일반가정에서는 공포에싸여잇다

이되엿는데 당지경찰서에서는 시경성모의학박사를 청하야 해부한다고한다

海州邑內에 棍棒强盜

【海州】해주시내에강도사건이발생하야 각방면에큰"숏크"를이르키고잇다 — 지난이월이십구일오전한시반쯤되여 해주읍 남욱정(海州邑南旭町)사법대서인 김두만(金斗萬)씨집에 괴한 한명이 침입하야 전기김씨의 내연처한지석(韓芝石)(二二)이 안방에서끈히 잘들고잇는것을 불러이르키고 돈을내지안보면 죽인다고 협박한후 금고에든 현금륙십원을 강탈하여가지고 도주하엿다 급보를바든 소관해주서(海州署)에서는 서원을 총동원하야 해주를 중심으로하야 느러고범인수사에 활동중인데 아직붓잡지못하엿다한다

大規模火藥工場 海州進出內定

【海州】해주항(海州港)에는자본금륙백만원 전액불입의 우부계(宇部系)"조선세멘트회사공장"출동으로 그부근일대의 지가는 경이적앙등을뵈여좋지에일확천금을한토지"뿌로-커"가 적지아니하야 그자극이아직도 식지안흔이때에잇서 또다시 해주지방에 대재벌을배경으로한 모화약제조공장(火藥製造工場)이 설립되기로 내정되여 그장소는 동해주역(東海州驛)남쪽 해안부근설과 해주시외"허정"부근설이 잇스며 더욱이오만여평의 부지구입(敷地購入)에대한 소식까지 류포되고잇서 그부근일대의 지가는 의외앙약으로 아연폭등하야 대활기를 뵈이고잇다한다

面民大會開催하고 三學級增設可決
燒失된加平校復舊案

【新興】지난십구일에 함남신흥군가평면(新興郡加平面)에잇는가평공립보통학교(加平公普校)제이학년교실에서 불이나서 그학교 삼교실전체가 모조리 타버리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후동교의 복구설계는 착착진행중에잇서 그장래가 일층찬연할것을 예약하고잇다 그중에도 그면면민의 년래의 숙망이든 삼학급증설(三學級增設)요망을 이번학교교사신축기회에는 기어히 실현식히고저 구천여의 면민은일치노력하고잇다 그리하야 지난이십사일오후한시부터는 그면회의실에서 그학교학급증설기성회(學級增設期成會)의발기로 면민대회를개최하고 면민유력자삼백여명의출석하에 의장리섭호(李運鎬)씨의사회아래 장시간토의한결과학급증설때에 쓰고저 년래로 모흐든오천원을 이번기회에제공하는동시에 다시 삼천원을 증모하야 총액팔천원을 만들기로 면민일치가결을 지엇다 삼학급증설을 위하야는 빈약한면민들에게도 불구하고 팔천원의대금을 서슴지 안코 거출하는 그면민의 교육열에는 일반사회에서 경탄하기를 마지아니하는터이며 당국자와의 교섭일체는 이미부터 조직되어잇든 전기학급증설기성회에 일임하고 동시경에 만장박수속에 면민대회는 무사히 맛치엇다한다

運轉見習生橫死

【公州】충남공주읍본정(公州邑本町)에잇는 조선자동차회사의운전수견습생김상득(金相得)(二○)은 지난이십사일 오전팔시경에 자동차를소제할제 자동차가 차고(車庫)로뒷거름하야오는차에 치여서 그만기절된것을 당지도립의원에보내여 진찰하엿스나 별고장이업다고하엿는데 의외인이십오일오전열한시경에 그만절명

水產學校問題로 有志道議訪問

【新義州】루보=룡암포(龍岩浦)수산학교(水產學校)폐지설에 그간 룡암포유지 김사영(金士泳)씨외네명이 군민대표로 미좌(美座)지사와 관구(關口)내무부장을 방문하고 두번이나 진정을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이어니와 방금 도회(道會)중인 지난이십팔일에도 룡암포유지(有志)김사영(金士泳)김택규(金宅奎) 김석호(金錫鎬)대내경시(大內慶市)제씨가 래신하야 도회의원(道會議員)들이 묵고잇는 여관을 일일히방문하고 수산학교 폐지문제에대하야 『진정』하얏는데 동교의 존폐문제에 적지안흔주목을 끌고잇다한다

乘合自動車顚覆 乘客等三名負傷

【咸興】이십팔일오전열시할홍흥남(興南)간이동도로 영대(英垈)부근에서 합동택시회사 합승자동차(乘合自動車) 제일천이십팔호에 승객십여명을 실고서운전수 백용린(白龍麟)이 운전하야가지고 흥남으로부터 함흥으로향하야오다가 전복되야 승객두명이 각기일주일이상 이주일간치료를 바들경상을입엇다 원인은 조사중이나 운전수가 스피드를너무내인게가아닌가한다

絕糧農家를爲해 農糧貸付를擴大
低利資金六萬二千圓計上하야 甕津、長淵、松禾에實施

【海州】황해도당국의 빈농구제를 위한 농량대부(農糧貸付)사업의 확대강화책——황해도당국에서는 춘궁기를 당하야 농량이 결핍되여 자주 흉은 고리대금업자등으로부터 삼활내지 칠할의 고리채를쓰고잇서 이로말미아마 적자(赤字)농사를 거듭하고잇는 빈농(貧農)의 오늘의 경제적위기를 구출하려는 기도미테서 총독부방침에 의하야소화팔년도에 십만삼천사백원의 예산으로서 벼(正租)일만삼천석을 매수하야 해주(海州) 연백(延白) 안악(安岳) 신천(信川) 재녕(載寧)등 다섯군내의 농량이 떠러진빈농에게 년일할의 저리로써 농량을대부하고 동십일년도에 오만삼천원의 예산으로써 벼삼천팔백석을 매수하야 옹진(甕津)장연(長淵)송화(松禾)등세군의 절량농가에 대부를하엿는데 그성적이 매우 우량하므로 도당국에서는 그사업의 확대강화를 꾀하고저 신년도에 또다시 륙만이천원을 계상하야 벼를 매수하여 가지고 황주(黃州)봉산(鳳山)평산(平山)등세군내의 농량이 떠러진 빈농을추려 농량대부를실시할터이라한다

車夫、白魔에犧牲
牛車끌고가다가눈에미끄러저 自己車輪에轢死!

【義州】우차를끌고 눈길을거러가든 차부가길이미끄러운 판계로 차에치워서 즉사하엿다 — 지난이십팔일 오후두시경에 의주읍내동외동(東外洞)십자거리에서 의주군주내면홍북동(州內面弘北洞)강덕문(姜德文)의집에서 머슴사리하는 박병용(朴炳用)(二○)이 가 우차에짐을싯고 전기지점을 진행하든중 이날은 례외로 퍼붓는눈때문에 길이미끄러운데다가 소가급히달려가므로 그만실수하야수레바퀴가목우로지나가 즉사하엿다고한다

各道道會逐開幕
裡里工校問題로 全北道會緊張!

【全州】제칠회 최종 전북도회(全北道會)는 예정한 지난이십칠일오전열시사십오분에도회실의에서 군산(群山)통구(樋口)의원을 제하고는 전원출석으로 개막되엿다 이제 래년에 보지못하든 방대한 전북도예산세입세출액을 본다면

◇歲 入
一金 一百十萬二千十一圓 經常部歲入額
一金 三百三十萬二千五百五十九圓 臨時部歲入額
合計 五百四十萬四千五百七十圓

◇歲 出
一金 百三十五萬四千三百六十一圓 經常部歲出額
一金 四百五萬二百十圓 臨時部歲出額
合計 五百四十萬四千五百七十一圓

이여서 김지사의 연설과 고시(古市)내무부장의 예산설명이 잇슨다음 제이일의 의정을 발표한후 이십팔일은 림시휴회를 선언한후 폐회하엿다는데 과반 전주공업보습학교 이전문제로 목하 분규중에 잇스니만큼 방청석에는 전주부공직자와 전주경찰서는물론 군산(群山)리리(裡里)각서(各署)형사들의 방청까지잇섯스며 개회첫날부터 공업보습학교 이전문제에 대한 공기가장내를 긴장식혀 익산의원(益山議員)의 발언에대하야는 일반의 시청이 집중되여 잇섯다고한다

黃海道會도開幕

【海州】약진황해도의 소화십이년도의 예산오백사십삼만오천사백원을 심의할 제오회황해도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칠일오전열시반부터 도청회의실에서 신임된강(姜)지사의 개회사로 열리엿는데 개회벽두강지사의 연술(演述)이잇섯고 이어 좌좌목(佐佐木)내무부장의예산설명이잇슨다음 오후한시경폐회하엿다

龐大豫算을俎上에 咸北道會를續開
來三月一日부터

【羅南】제오회 함경북도회(第五回咸鏡北道會)는 지난이십칠일오전열시반도청회의실(會議室)에서 아도(兒島)의장사회 아래열석(列席)관부와 의원이십일명중 (이명결석)십구명 출석으로 사백사십일만원이라는 소화십이년도의 방대예산을 도마에올려노코 회의에드러갓다 아도의장으로부터도회연설(道會演說)이잇고 이어서 리내무부장(李內務部長)으로부터 신년도세입세출 예산편성에대한 장시간의 설명이잇섯다 오후열두시이십오분 설명이끗나자 의장으로부터 산회를 선언하고 삼월일일부터 속행할것을 말햇다

地方人事

▲金泰斗氏(榮州產業組合理事)同組合認可人事次本報榮州支局來訪
▲若月藏太氏(榮州郡內務主任)新任人事次本報榮州支局來訪
▲赤木憲之氏(前榮州郡內務主任)退職人事次同上
▲魯相龜氏(前公州地方法院判事)元山支廳轉勤人事次本報公州支局來訪

罪지은母性愛 竹西樓의悲劇
한자식보담 두자식 아가! 넌、죽어다고
세자식데리고살수업서딸과죽으려다
두자식애껴 한애만三百尺斷崖서던저

【江陵】눈에집어너허도 아프지안흔 사랑하는 희망의어린 자식을 원수의 삶에부다껴서물속에던진비극이 관동팔경중에서 승지로이름노픈 죽서루(竹西樓)에 전개되엿다

이눈물겨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북달성군에서 작년여름 급격히드려미는사나운 물결에 가산전부를 류실당한 신선봉(辛先奉)이라는 농사꾼으로 그는가족 다섯명의 생활을부양하고저 동년십일월경에 강원도삼척군 무연탄광으로 버리짜리를 구해갓섯는데 그는가족을 읍내성남리에 남겨두고 단신으로 현지에가서 겨우탄광에서 로동에 종사하게되엿다 그리하야 하로에품갑륙십전을 바더가지고 자신의 식비와 용돈을쓰고는 사오원의 돈을 그의가족에게 보내주엇스나 이것을가지고는 안해세사람의 어린자식들의굶주린창자를 채워줄수가업슬지경이엇다 그래서그의안해 김복녀(金福女)(三○)는 자기도무슨버리를 해서래도푼전을어더 살림에 보태하고저 애를쓰든중 또세째딸을나케되자 도저히 맘대로 활동을할수업서 그는사랑스러운 자식을 혹어린아이가 업서서 길러보려는 곳에잇스면 이를주어버림이되려고 구세모가 박도한 지난오월 그야말로 생후오십여일을 겨우 고음내와 정라진 방면으로두루도라 다녀보앗스나 너머도 어린것과 모도(乳道)가 부족한관계로 못처럼생긴한사람의 희망자마저노치게되엿다 따라서 살을에여내는듯한 치위로 인하야 등에 업힌자식은 주림에 떨면서울기를 마지안헛스나 맘대로 음식을 먹지못한 산모에게는 젓이 흔할리가 업섯다 그래서빈 젓만 물리고 길을가면서 이리저리 궁리를 한결과 마친내사랑스러운 그어린것을 내힘으로 먹여살릴수업서서 그숭고한 의무를 남에게 전가하려는것이실책임을깨닷고 차라리 이자식과함께 목숨을 바리겟다고 결심을햇다

그는 그날 느즌저녁때쯤돼서 전기 죽서루에 올라가서 집에 남겨노코나온 두자식들이 다시 도라못갈 어미 즉자기를 기다리고 잇슬것을 생각하고 몸을 강으로 던지려할 눈깜박할 순간에 아! 그녀자의 눈아페는 두어린것들이 한줄을 그은드시 손들을 옹켜쥐고 부억아궁지아페 서잇는것이 저녁해빗에 반이나놉은 눈빗과함께비최이므로 그는 모자가 함께죽겟다는 결심이스르르 풀리며 만일 내가 죽으면 저것들의 전정은 말할수업는 참경에 이를것인즉 차라리 어린것하나만을 업새고 나는 저남은 두어린것을 위하야 사려야되겟다는 심경의변화를 이르키는동시 그는젓을 물고 평화스럽게 자는 어린것을 양심의채쭉에 쫏기차게 나려갈

七十萬圓工費로 羅津漁港을施設
十二年度着工豫定

【羅南】라진에어항(漁港)을설치하기로 운동한지 이미오래든바요사이 구체적으로 해결을 짓게되야 소화십이년도예산에계상되리라는바 총공비칠십만원으로라진부간의동(間依洞)에 해안선삼만오천평을 매축(埋築)하게되얏다한다 공사의완성은 소화십삼년도내로 되리라는바 웅기(雄基)어항의 완성과 전후하야 유수한 어항이 나올것으로 통과무역(通過貿易)지대로서 실력을갓지못한다는 평을밧든 라진항도 차차경제적실력을 갓게되얏다 경비칠십만원의 년출방법은 매축한 삼만오천평중 약반되는 이만평을 매각하고 한편나머지는 부체자의 항구적재원으로하려고 공용용지를 만든다한다 이에서나는 사용료(使用料)를로표로 십이년년부로 기채(起債)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완성을기다려 라진은면목을일신하게되리라한다

北國서오는첫봄소식
벌서꼿봉오리보루둥 咸州地方의진달레는

【咸興】춥다춥다하든 북국 함흥(咸興)에도 봄은차저와서 벌서 진달내가 꼿봉오리를 잡엇다는 양기로운 소식을 들려주고 잇다 함흥(咸興)지방은 최근 기온이점점노파서 평균기온이십도의 따뜻한날세를 보이고 잇다 그리고 성천강(城川江)에 굿게어럿든 어름도 거이풀리엿스며 함주군덕산(咸州郡德山)천서(川西)지방 양지쪽 진달내는 꼿봉오리를 맷혓잇다는데 꼿을 볼날도 멀지안엇다고한다

回甲을記念으로 五百圓을喜捨

【江西】강서군반석면반삼리(江西郡班石面班三里)김정곡(金貞穀)씨는 지난이십일에 자기회갑연을 절약하여가지고 부락민구제와 각사립학교에 금오백원을 희사하엿다는데 씨는원래강서군수산면출생으로 약이십년전에 적수로서 현주소로 이주하야 이래토지개량에 만흔노력을 한결과 지금에는 적지안흔 재산을 가지게되엿다가라한다

長篇小說
그의自敍傳 【71】
長白山人作 熊超畫

방랑의길 (廿四)

우리 렬차는 허르빈까지 오는 동안에 나흘이나 걸렷다。동방으로서 오는 군용렬차를 피하기위하여서 어떤 정거장에서는 열주야를 차중에서 묵은 일도 잇엇다。동방으로 오는 렬차는 군인과 대포와 말뿐이엇다。보통승객의 길은 거의 막힌 모양이엇다。

어떤때에는 광야의 외로운 정거장에서 밤스중에 두 세시간을 기다린 일도 잇엇다。낫에는 아직도 땀이 날만한 기온이언마는 밤에는 얼음이 얼만치 추웟다。내 빨간 담뇨 하나로는 견딜수없을만 한 때에 엘렌이 폭은한 담뇨를 갓다가 덮어주엇다。마가렐과 엘렌은 날더러 이등으로 오라고、그러지 아니하면 자기네도 삼등으로 오다고 말햇지마는 나는 명령적으로 그냥 잇으라고 하엿다。내가 R의 돈에 한푼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치아니하는까닭이엇다。

하르빈에 나린것은 비오는 어느날 석양、우리는 여기서 관성자(지금의신경)로 가는 차를 갈아타야하는것이다。이튼날이 아니면 연락하는 차가 없기때문에 우리는 하르빈에서 려관을 하나 찾아들엇다。나는 젊은 여자를 다리고 하는여행이 이 길이 처음이기때문에 마음이 조려서 기름이 마를 지경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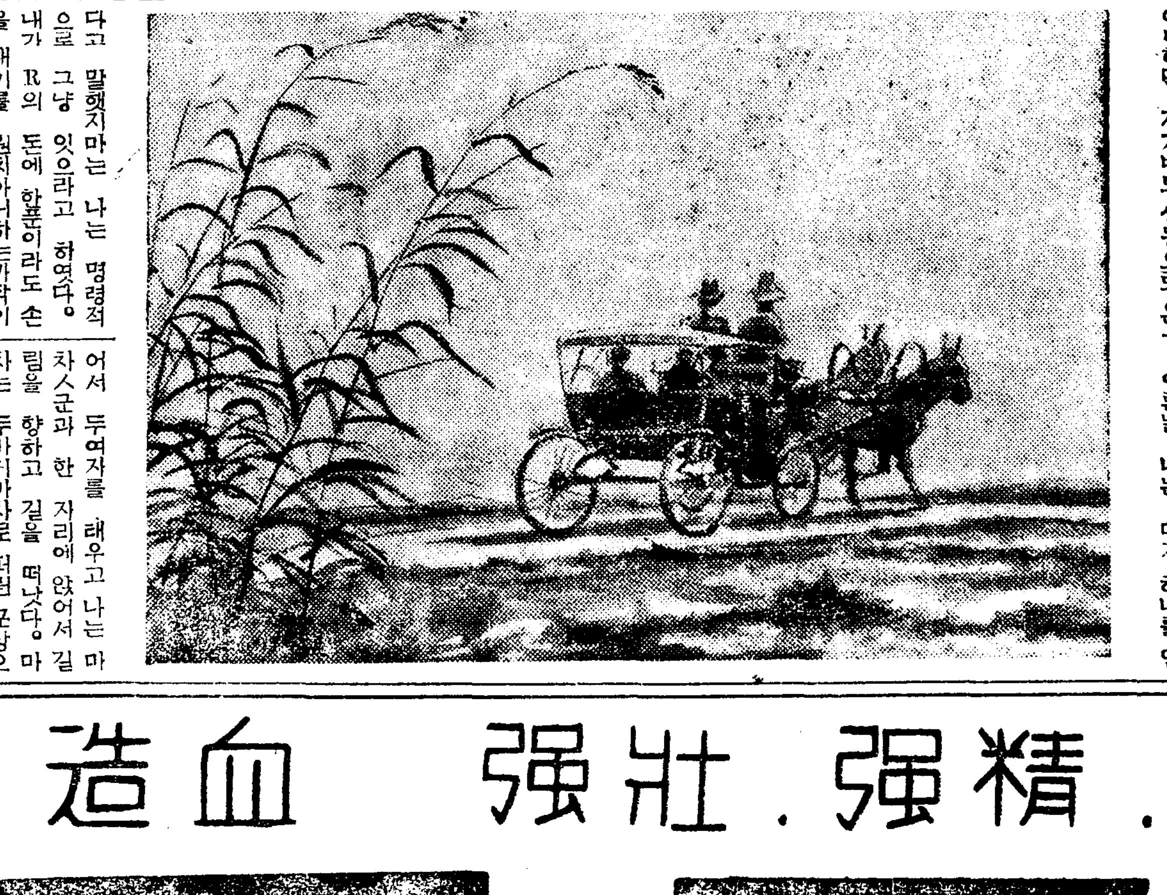
다행히 마가렐과 엘렌은 나를 잘 믿고 따라서 내 말을 잘 복종하엿고 또울지도아니하고 유쾌하게 노는 때도 잇엇다。그것이 실로 다행이엇다。만일 그들이 차때에 잇을 때 모양으로 자꾸 울기만 하면、그런 질색이 없을것이다。아마 하르빈까지 오는 길에 수없는 중국인들을 대한것이 얼마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 모양이엇다。

이튼날 나는 마가렐과 엘렌을 다리고 나서 청복을 한벌씩 사 입혓다。관성자서 길림을 지나서 부간도로 가랴면 청인세를 하는것이 안전할듯하기때문이다。그들은 처음에는 「따이스킨」이라고 청인을 멸시하야 그 의복을 입기를 싫여하엿으나 나는、이로부터 우리는 청인들 속에서려행을 할것과 일가는 청인들 속에서 살아야할 것과 또 청인이 결코 멸시하거나 무서워할 백성이 아니니 이로부터 청인을 동포로써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한다는 뜻을 말하야서 그들도 순순히 청복을 입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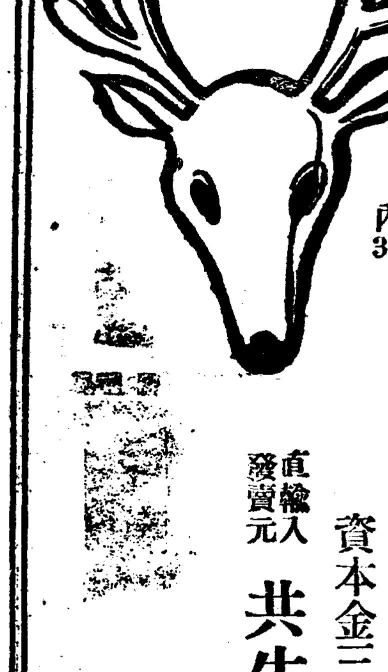
그이튼날 차를 타고 비가퍼붓는속으로 관성자를와 내리니 지경이 넘엇는데 시베리아방면에 사는 유대계 아라사스부자들이 상해방면으로 피난을 가노라고 어떻게 손님이 많은지 우리는 가까스로 중국사람의 려관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다가 두 사람을재우고 나는 혼자 끼어잘곳을 구해보앗스나 큰돈을지니고 어찌할수없이 두여자가는한편구석에서 눈을붙엿다。이로부터 이와 가튼 주막생활을 수십일이나 할 생각을 하면 이것도 한 연습이엇다。

이튼날 나는 마차 하나를 얻어서 두여자를 태우고 나는 마차스군과 한 자리에 앉어서 길림을 향하고 길을 떠낫다。마차는 두바퀴마차로 퍼런 포장으로 지붕을 한것인데 오장이 들추이도록 흔들렷다。바퀴가 절반씩이나 빠지는 길、길이 넘게 자란 수수밭 속으로 가는 고생은 여간이 아니엇다。더구나 젊은 여자와 재물을 지니고 가는길 이라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아니하엿다。나는 하르빈에서산 육혈포를 언제나 빼어서 쏠수잇도록 청복 앞자락에 넣고 가끔 그것을 만저보앗다。나는 모든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긴다고 생각은 하면서 남의 가족과 재물을 맡은 이상 내힘것은 그들을 보호하되 죽기까지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엿다。수수밭 속으로부터 어떤 놈이든지 덤비면 육혈포로 해댈결심을 하고 잇엇다。

나는 낙시질도 못하는 성미다。고기를 속여서 잡아죽이기가 어려운것이엇다。한번은 K 학교의 비둘기 한 마리를내손으로 목을따서 죽인 일이 잇엇으나 그 후로는 한 달이상을 두고 괴로워하엿다。이러한내가 육혈포로 사람을 쏠수가 잇을까。그러나 마가렐과 엘렌이 나만을 믿고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줄줄 따라오는것을 생각하면 무슨 짓이라도 할수잇는 것같앗다。



世界的.造血 强壯.强精.特効劑



판토크린
PANTOCRINE
USSR

內服液 30瓦(約15日分) 7.50
注射 1瓦6管入9.00

참다운人生의享樂과謳歌는
판토크린(花鹿茸精血)로요!

판토크린은、鹿茸이 太古時부터 東洋諸國에서 萬病의 特効藥、特히 造血、强壯、强精、强心劑로서 珍重愛用되는點에 着眼한 蘇聯國立內分泌研究所에쓰·엠·파브렌코 博士及其 藥、生物學者諸氏가 深奧하고 該博한 學理와 臨床實驗으로 心血을 다하야 創製한 花鹿茸의 精血、即東部西伯利亞特產鹿의 아직 骨化치안흔 叉角의 血絲及血球를 濃縮한 호루몬製劑이다。다시말하면 鹿茸中에서도 가장高貴한 花鹿茸의 主成分을、最新醫藥學原理와 實際에 符合하도록 創製한것인즉 心、胃、神經、肺等을 特히 補强하야、造血成骨하며、吾人으로하여금 精力과 生氣를 無窮케하는 實로 現代醫、藥學界의 理想的極致인 것이다。

鹿茸의効力에對해서는다시말할必要도업다!

이런분은 即時 服用하서서 健康을恢復增進하야써 成功의榮譽를 獲得하시라!

(花鹿茸精血)

血色이나뿌고 氣血이 俱虛한분。
虛弱하야 多病한분。
心臟이虛弱하야、脈搏이弱 또는不整한분
陽氣不足하야 早老하는분。
口味가업고、消化不良한분。
慢性胃 病또는便秘病잇는분。
全身이虛脫하야、微熱이繼續하는분。
盜汗이나고、眩暈症잇는분。
肺가나뿐분。
神經이衰弱하야、精神이흐린분。
產後衰弱한분。
胎中衰弱한분。
病後衰弱한분。
精神이 沈鬱하고 倦怠症잇는분。
肋膜炎으로 알는분。
子宮出血、帶下症、萎黃病잇는분。
切開手術後癒合이느진분。

本劑의効果에對해서는 洋醫漢醫를 勿論하고 貴下의 信任하시는 醫師에게 問議하서서 服用하시라!

全國有名藥房에서販賣 呈進文獻及說明書

直輸入發賣元 共生藥業株式會社
資本金三十萬圓
京城鍾路一丁目七一
電話光化門 二五四七番
振替口座京城二二〇〇二番

經濟時說

"金現送問題" 그 意義와 影響一瞥 ②

李健赫

다음으로 金現送聲明에 依하야 産金을 獎勵하겟는 關係上 日銀의 金買入價格을 引上하리라고 期待하고잇다。貨幣의 本位를 金에두는限 만히 金을保有할 必要로 日本銀行으로하야곰 産金을 買入케하는데 昭和七年七月八日 發令에依하야 從來는 日米爲替市場에 그平價와의 差額의 十分의二를 加算額을 買上價의 決定標準으로 하얏섯스나 十一年五月六日부터 倫敦金塊市 四十志(七磅)를 基準으로하고 對英一志二片으로한 圓價格에서 一割의 危險率을 減한것으로 一瓦三圓五十錢 (一匁十三圓十二錢五厘)을 定하고 今日에 至한것이다。

日銀의 産金買入價格은 昭和七年三月七日 一匁에 七圓二十五錢으로 發表되고 其後七年中에 變更되기 二十三回이엇는데 이제 八年以降의 買入價變更의 자취를보면아래와갓다

◀昭和八年‖一月九日 一匁에 九圓三十三錢、一月三十日 九圓三十七錢、二月二十日 九圓二十九錢、三月二十七日 九圓二十五錢、四月二十四日 八圓八十八錢、九月八日 十瓦에二十三圓六十八錢(一匁에 八圓八十八錢) 十一月二十二日 一瓦에 二圓六十五錢(一匁에 九圓九十四錢)

(九年四月七日 日銀金買入法實施)

◀昭和九年‖四月七日 一瓦에 二圓九十五錢(一匁에 十一圓○六錢)

◀昭和十年‖一月十一日 一瓦에 三圓○九錢(一匁에 十一圓五十八錢)

◀昭和十一年‖五月六日 一瓦에 三圓五十錢(一匁에 十三圓十二錢五厘)

日銀의 金買入額은 年年 激增하야 昭和十一年에는 一億一千二百五十九萬圓의 巨額에 達하얏는데 日本銀行이 保有하고잇는 金準備는 五億五千五百餘萬圓이므로 이것을 時價(一匁十四圓六十錢)로 換算하면 十六億二千萬圓이나된다 한다。

×

金現送聲明은 前途多難이 豫想되는 爲替에 對하야 不安을 一掃하고 安定함에 非常한 效果가잇섯다。떨어서 今後의 爲替는 低落치안코 一志二片을 維持할것이 確實타고보는 모양이다。

現在 爲替가 軟弱해진 原因은 무엇이냐하면 1、增稅에依한 物價騰貴豫想의 投機的豫算影響에依한 物資의 新需要豫想으로 輸入이 殺到하야이미 巨額의 爲替가 取組되엇스므로 輸出이 豫期와가티 늘지안는다면……하는不安때문이엇는바 이러한때에잇서 「在外資金이 不足한때는 金現送을하겟다」는 言明은 적지안케 安定을준것이다。

×

그러면政府의 言明과가티 事實로 金現送이되겟느냐하면 그것은今後의 貿易狀態如何에依하야 決定될것이다。即目下爲替管理의 强化로 輸入이 減少된一方輸出이 繼續하야 順調이면 金現送을 안코도될것이며 이와 反對로 輸入이그냥늘기만하고 輸出이不振하면 金現送이 實際로 나타나겟스나 軍需方面의 輸入도 될수잇는대로 制限한다면 在外資金不足에 至지안을것이오、從하야 金現送도 안코도될것이라는 觀測이잇다。

×

또日本의 正貨現送高는 貸借價低落을 考慮에 너어서 英國과 거의同率의 豐富한準備가잇고 또國內로부터 年年多額의金이 産出되므로 걱정할것업시 海外로 送金하야도조흘것이다。할수업게되어 金을現送케되엇다는말이업지안흐나 그런것이아니오 正貨를 輸出하고 外國의反響을본後에 一日이라도 速히 輸入爲替管理를 撤廢하라는論까지 擡頭되어잇다。—(꼿)—

對外貿易好轉 輸出最高記錄

綿織人絹세멘트葉煙等輸出增

二月中入超는大激減!

一月中 朝鮮의 對外貿易은 (單位千圓)

		比前年同期
輸出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入超	[illegible]	[illegible]

이고또一月以降의 累計를보면 (單位千圓)

		比前年
輸出	[illegible]	[illegible]增
輸入	[illegible]	[illegible]增
計	[illegible]	[illegible]增
入超	[illegible]	[illegible]減

으로 輸出貿易은前年十月의 八百七十二萬二千圓의 最高位를 凌駕하는 最高額의 記錄을지어 入超의減을보아 對外貿易의 大勢는好轉되고잇슴을 보이고잇다 輸出貿易의好轉은 綿織物、人造絹物、세멘트等의滿洲輸出、葉煙草의埃及輸出이 增進한것과 또魚油의 獨逸輸出二百二十五萬圓等이잇슨까닭이다、그리고、輸出貿易을다시産地別로보면

		比前年同期
朝鮮産	五、七六七	三、○一四增
日本內地産	二、九五三	九○二增
外國産	一二六七	一三四增
計	八、九八八	四、○五○增

으로 增加率에잇서서 朝鮮産 前年同期의 一百七十五萬二千圓의倍以上增加를 보이어 前年同期는 日本內地産의 通過貿易이 輸出額의 約半을占하든것이 三分의一假量으로相對的減을하엿다

工業地帶永登浦에 銀行支店設置陳情

◇…商議役員會에서決議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지난二十七日 役員會를열고 一、工業金融에 關한件 二、滯納賦課金整理에關한件 三、小賣商店簿記講習會開催의件을 附議決定하얏는바 一項 工業金融에 對하야는 目下 京城府勢擴張에 伴하야 永登浦가 工業地帶化하고잇슴에 不拘하고 工業金融의 施設이 不充分하다하야 總督府에 有力銀行의 支店設置를 陳情하기로 決定하엿다한다

現在 永登浦에는 東一銀行出張所가잇서서 業務를 繼續中인데 總督府가 이에對하야 어떠한 措處를할는지 注目되는터이라한다

當分形勢靜觀

◇……市川東銀專務 談

工業金融에對하야 商議에서 永登浦에 銀行支店設置를 陳情하기로 決定한데 對하야 現在永登浦에 出張所를 가지고잇는 東一銀行專務는 如左히말한다

工業金融問題로 永登浦에支店設置를 商議에서 陳情키로 決議한것은 相當히 理由가 잇는줄안다 旣得地盤을 가지고 잇는當行으로서는 多少의 脅威를感하는것이나 그러타고 銀行支店設置를 反對할 性質의것이아니므로 當局에서 그陳情에對하야 어떠케할지 當分 形勢를傍觀코저한다

殖銀增資在近 먼저拂込徵收

殖銀의增資說은 今日까지 屢傳하야잇는데 總貸出이 五億圓以上으로膨脹되어 此等貸出增加에對應할 資金關係로도 起債能力의擴大를 圖할必要가 漸次痛感되므로 今春一株에 十二圓五十錢의 未拂込을 徵收되고 三千萬

殖銀債券도 日銀見返擔保로

日銀은 産業金融의 積極的助成의 意味로 日銀制度를 改正하야 見返擔保의 擴大를行하고 興業債券과 如한것을 正式擔保로 하게될모양인바 이와同樣의 意味로 殖産債券等도 興業債券同樣 正式擔保로 包含되리라고 解釋되는바 殖産債券은 從來라할지라도 日銀의 準見返擔保로서 制限付下에 優遇되던것이되면 日本內地 金融業者에게는相當히 有利한 運用債券으로 되리라한다

米國에分割輸送

金現送의方針決定 兌換準備悠悠補充

結城藏相이 表明한 金現送에 對하야는 이미 方針을 決定하고 事務的 手續의 完了를 기다릴뿐인데 現送하는데는 英國보다도 米國이 運輸關係로보아서 便利하며 또 有利하므로 米國을 向하야 現送할 意向이라 한다 그러고 現送方法은 危險의 分散을 圖하기 爲하야 極히事務的으로 行할 前提下에 幾回에 分하야 分割輸送을할 方針이라한다 金額에對하야는 반드시 一年의 産金額에 限할必要는 업다하야 金現送에 依하야 日本銀行의 正貨準備에 아무支障이업슬을 確信하고잇다는바 本銀行의 正貨準備에 不便을 느끼는 時間에서말하는것과가티 平價切下는 行할必要가 업다고한다 萬一 兌換券의 發行準備에 不便을 感할과가튼 事態가되면 貨幣法의根本에 遡及하야 平價切下를 行하는 繁雜을할것도업고 簡單히『日本銀行所有金은 買入價格에 依하야 兌換券發行準備를할수잇는』立法手段을 講究하면 足하다고한다 그러나 實際問題로서는 아직 그必要가업고 따라서 今議會에 이法律案을 提出할意思도업다고한다。

通話申込調節通告로 株式街에異狀

取引員組合委員陳情

最近證券界의 膨脹으로 京城朝鮮取引所取引員、現物店들이東京、大阪、博多等大都市業者와의 每日每時만흔電話連絡을하고잇고 큰店에서는 店員中早起係를두어 午前五時頃부터 通告申込을하는 일이 常例化하고 特히株式關係者들의 通話가거의 獨占的이되기때문에電話局으로부터 二十七日夕刻各店에 對하야 通告申込을너무만히하지말라는通告를 發한데對하야 取引員側에서는 度數制限인줄알고 一日電話局에 陳情하얏고現物關係의 取引은閑散하야 異狀을呈하얏섯는데 이에對하야 中央電話局長은 아래와가티말하얏다

度數制限아니다

小堀中央電話局長談

株式取引店에서 東京、大阪等地와의사이에 通話申込이너무만하서 電話局에서 處理에困難하므로 좀調節하여달라는 通告를하엿더니 取引店關係委員諸氏는 度數를 制限하는것인줄로 曲解하고 깜작놀라서 質問하러 왓습되다 電話局에서는 取引店에 對하야 無制限으로 작구 申込만하면 電話를 만히 걸수잇는줄로 알고 申込하는 그點을 고처서 假令 大阪에 무슨 東京에 한 店이라든지 가장 必要한 取引店에만 通話를 申込하도록 勸告한데 不過합니다 한집에서 二十二이나 三十을 서로競爭的으로 申込한다드라도 그것이 全部나오게 되는것이아니고 大部分은 取消되게되는 形便이므로 애초부터 몃군데 必要한곳만 指定하야 걸도록 講究하여 달라고 付託하엿더니 그들도도라가서 잘相議하겟다고하엿습니다

朝鮮近海는 優秀船時代

朝鮮의近海海運界의 船質은 一般的水準에잇서서 顯著히劣等인데 一兩年來 北朝鮮航路의 船質優秀化의 實現과共히 一方西海岸에서도 朝郵의新造船六隻은 三月부터 이어서竣工되는一方 大阪商船에서 從來「자ー라ー」主義를 本年부터 社船、新船을就航케한結果 西海岸도 本春以降一齊히優秀船時代에 入케되엇다 한다

用語解說

▲콘체룬‖(Konzern) 形式上獨立의 形態를가지고 個個의 企業이 實質上一中央部에 依하야 支配되는結合體를가르친것이다。『칼텔』과 相異한것은 所屬企業의獨立性에 對하야 嚴密한制限을加한點이 아보다 『트러스트』와相異한것은 獨立性을 否認치안는 點이다。

▲자ー타ー‖(Charter) 두가지 意味가잇스니 하나는 特許狀이란 意味이오 하나는 船舶을 傭入한다는 意味이다。

▲見返擔保‖中央銀行이 取引銀行에 對하야 手形割引을할境遇에 擔保로서 取하는 有價證券類를 가리친것이다。日銀에서는 內規에依하야 그種類를 制限하고 一般이公表치안헛는데 이번日銀은 産業金融積極的助成의 意味로 日銀制度를 改正하고 殖銀債券을 正式見返擔保로하리라한다。

住友合資解散

株式組織으로變更

【大阪電話同盟】住友財閥의 最高執行機關으로서 銀行、信託、保險의金融及製鋼、輕金屬、金山製銅、石炭、機械의重工業과 化學工業、倉庫、交通、不動産事業等 彪大한住友콘체룬을 統制할 住友合資會社는 二十八日總社員의 同意에依하야 解散키로決定하고 營業、從業員의一切를 擧하야 三月一日大阪本社에서 開催되는 創立總會에서 設立할株式會社住友本社에 讓渡키로되엇다 住友合資會社의 組織變更은 昨年以來 表面化한 合資首腦部에 對한 機構改革의內部的要望을反映、體化한것으로 同財閥의 廣汎한事業網의 統制强化를 爲하야 그最高機關의 組織을 整備할 必要로 因한것이라한다

中旬煙草賣渡高

專賣局二月中旬製造煙草賣渡高合計는 一百六十五萬八千三百四十一圓으로써 前年同期四割一分二厘增

取引停止

(二月廿五日)食料品商 京城府若草町七七 井上好雄 ▲京城府長谷川町三三 李龍麟 ▲雜貨商 京城府南大門市場內 朴性浩 ▲貸金業 京城府授恩町一七 成義燮

今日의市勢 (一日)

○永登浦에 銀行支店設置를陳情키로 商議에서決議

○어왕 地盤을가지고잇는 東銀出張所에 打擊이 업슬가?

○朝銀은 中央銀行으로서 體面關係가잇고 殖銀은 龍山에 出張所가잇는데……어느銀行이 進出할지 注目거리

○그러타고 普銀으로서는 工業金融에 힘이버차고……

株式 反落 戾賣物로

前場反落 再昨前場은雜株高에 支援되어 强硬한步調를보엿스나 休日을지난 今前場은 買方의戾賣物도 다시 反落하야 東新은 百五十九圓四十錢으로 一圓八十錢低에 寄付함에따라 大新九十六圓五十錢、鐘新二百四十圓五十錢、日産八十五圓五十錢等에 反落寄付하고、이어서續落하야 東新八圓五十錢大新五圓七十錢의 低價大引으로 前場을마치엇다

後場續落 後場은 東新百五十八圓七十錢으로 少堅寄付하엿스나 賣方의 追擊急으로 續落하야 五十七圓臺로 崩壞되어 軟弱하엿다

目前은戾賣?

議會平穩豫想과 雜株高에支援되어 鼎騰한東新은 賣方의踏上으로 百六十四圓五十錢을보인後 買方의利喰으로 百五十八圓二十錢까지 小押하엿스나 買氣는意外로 强하야 容易히低落지안코 다시百六十一圓臺를回復하야 今朝에는 頑强한바잇섯는데 今朝에는다시 買方의投物과 賣方의再賣로 急轉崩壞되어 再次百五十八圓臺로 低落되엇다 이를對線上으로보면 影子만흔陽線二本으로四圓五十錢의 高價를보인後 三本連續陰線을내어 目前은잡시 小天井을낸形이되엇고, 再昨日土曜의 짧은陽線으로 賣方의逃避場이되고 賣方의戾賣場이되어 今朝의 反落을招致하게 되엇스므로、이와가티하야 理商狀이되면東新은 큰反動으로 惡化되는일은업슬것으로 보드라도 玉整理가 끗나기까지는 上伸力은 疑問이니 百四十七圓더約十七圓餘의 騰幅을보로 적어도 半價押、或은三分二押을告한後가아니면 再次活躍키는 어렵다는것이 市場一般의觀測인모양인바 事實 前途는樂觀이오 環境또한 그리不利할것은 업다하드라도 取組의重壓이 輕減되고、一般情勢의前途가 좀더 明瞭化하기까지는 買方의 積極行動은어려울것으로볼수잇슬것이다

國債 無材料로 閑散

▲東京【東京電話同盟】依然 刺戟材料가업서 場面은無味閑散으로 一同四分은 少堅이엇스나 一同四分三回四分은 五錢少弛하고 佛貨도 軟弱하며 米貨는 六分半은不變 五分半이엇다 ▲甲五分利 [illegible] ▲二回四分利 [illegible] ▲三回四分利 [illegible] ▲佛貨 [illegible]

▲大阪 ▲甲五分利 [illegible] ▲二回四分利 [illegible] ▲佛貨 [illegible]

雜株氣配鈍狀

休日을지난 雜株市場은 大體로 拂込增資等의 材料物以外에는 活氣적고 大體鈍狀이어서 電工滿아루미는 三十錢高이나 日新은 三八、八로 七三、三으로 二十錢低 同新三六、八로 三十錢高이며 日本曹達新은 一圓九十錢高이나 九州曹達은 六十錢低로 區區이며 帝國火藥은 一圓高로 二十一圓丁이엇다。東滿말프는十錢少弛이며 東邦人造도 二十錢低인데 日華紡은 四十錢高이엇다。大阪製鐵은 七十圓丁인데 同新은 十二圓五十錢拂込으로 十五圓高인 四十圓丁이며 朝鮮製鍊도 十二圓五十錢拂込으로 四十六圓五十錢唱이되고 도랫지는 不變인 三三、○인데 日産新은 三十錢低로 三七、二이엇다。大同産業은 二十錢高인 一一、二○ 데젤은 三十錢低로 一三、五 日滿말푸도 不變이며 鹽水港糖은 親株는 八十錢低로 七六、○ 同新 八十錢低인 三○、五로 一息이엇다

實物前場取引

▲片倉製絲 [illegible] ▲東京人絹 [illegible] ▲日滿亞麻 [illegible] ▲大同産業 [illegible] ▲鹽水港製糖 [illegible] ▲小田原急 [illegible] ▲東滿말푸 [illegible] ▲日曹말푸 [illegible] ▲朝鮮製鍊廿五圓拂込 [illegible]

期米 意外下鞘 發會

前場膠着 今朝東京은 中限三十一圓九十四錢 先限은三十一圓九十三錢인 一丁下鞘로 發會되고 當地는 中限三十一圓六十一錢인 八丁下鞘로 發會되고 新甫五月限은 二十九圓八十九錢인 一丁下鞘로 發會를始한後 阪地二節六十九錢으로 七十錢에 膠着不振함을 맘아 八十九錢四番同價로 八十三錢까지 少押하엿다가 更히八十八錢으로 歸局 阪二七十一錢을 보고 八十九錢同價에 止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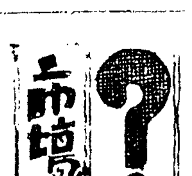
後場低迷 後場은 二十九圓九十五錢인 六丁高로 始場한後 三節九十八錢으로 少戾하엿다가 다시 四節九十四錢 五節八十九錢으로 低迷이엇다

稀有의下鞘! 前途低를暗示

二、二十丁上鞘로 發會될것으로 期待하던 新甫五月限은 稀有의下鞘로 發會되엿다。그런데암호로 그무어무엇?▲一은三月一日 現在日本內地殘存米의發表如何 二는三百萬石買替남어지의五十萬石權利 ▲此兩材料의如何度의拂下와買上 ▲今朝各地共히 例外下鞘發會는 前途低落의前提인것도갓다 그러나殺會當日부터 膠着狀勢로 終始함뿐 ▲將來어떠한弱材가突發할지는몰으나 今日市勢의步調는 山雨欲來風滿樓의感이 不無

㊑……新甫五限은 稀有의下鞘로發會되엿다 그러나 買方으로는 得策?

㊑……아모리 買氣가旺盛한時代라하드라도 利廻採算이鈍한 時代라하드라도 利廻採算이鈍한 取引所株는 大體로 悲觀이라 하려는傾向 ▲이런意味에서는 投機性이만흔株는 漸次 疎遠되게되겟스나 ▲너무나 오랫동안 眞面目하여왓고 또雜株와의 距離는 過度의差를 보이게되엇스니 아모리戰時體制라하드라도 한번은 大活躍할때가잇슬줄로 하다마는 大勢는 如何 目前은 戾賣人氣이니 低落一巡을 기다리는것이 買方으로는 得策?



產地依然賣惜

實勢는亦頑强

昨年新米穀年度以來 今日에至하기까지 産地의 實物이 이러타할만한 數量이업시 平均賣量繼續하여왓스므로 集散市場은宛然한 減穀期의現象으로 春暖期에 臨迫한今日에도 依然賣惜方針을 取하야 實勢의頑强을 支續하므로 淸算市場亦容易히 低落을 許치못하고 一段低落을 하다 勿論持米側의 態度頑强으로서 當分瓦落을 期待키難하나 그러나 米價는 各地를 通하야旣히 高價를 出盡한後이므로 更히 그以上의 鼎騰은 期待할수업고 다만此邊에서 十分保返하다가 下分岐線을 演出하지안홀가한 商談이 區區

朝取期米取組內容

(單位百石)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一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白米 一石	[illegible]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玄米FAQ(大連)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圓) 今日止 比前日: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illegible]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報】新甫五限은 十錢上鞘를豫想하엿든바 도로혀八錢下鞘로 發會하엿다 買氣衰頹되어 中盤으로부터 西側의 一千石賣에 出安人氣가 擡頭하엿다 逆鞘는 絶好의 買場이라고보아 場違側의 河連節買進하엿다 當中三萬石의 買玉을가진 小河修는 今後市勢形勢如何로는 更히 買乘態度에잇다 三木은 新甫를 조금식賣하고 其他決政도 賣狙態度이다

京城底堅

少잇고 正租의 割高持續으로 市況은 底堅한 推移를 보이고잇다 ㊀三等 三三、一〇 四等三二[illegible]

仁川少堅

期米는 極히軟弱狀을 모하고잇스나 當用側 九、八〇 ㊀等白米 [illegible]

米正 京仁以外低落

釜山軟調

市場出廻는 四千叺이 잇섯는데 新甫期米의 釘着狀態와 賣行不振으로 一部所持側의 嫌氣的賣物이 現出하엿스나 商談은 極히 圓滑을 缺하고잇다 ㊀三等三〇、二〇 四等二九、九〇 一等白米 [illegible]

大邱小崩

期待된 淸算新甫의 釘着的保合을보고 急轉氣弱商狀이되여 鮮米二十錢 反落을 告하엿다 ㊀三等二九、[illegible]

群山低落

日本內地殘存米數字의 弱氣豫想과 春暖接近을 與한地의 所持側도 多少賣急하는 傾向에 잇스며 兼하야 期米의 軟調로 市勢는 漸弛로 다시二錢低落하엿다 ㊀三等二九、[illegible]

木浦閑散

淸算新甫의 釘付的保合을 보고 月初의 市場도 休商同樣의 閑散場面을 呈하고있다 ㊀三等 [illegible]

期米 東益夏 仁川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吉村取引店 仁川 福 期米

金銀賣買會社 金銀 金土石 賣買分析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玉 期米 柳來恒取引店

金白金銀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海外經濟 (二七日)

[illegible]

銀行券 (二七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 金銀價

◆東京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鰮油粕·麥粉

◆阪神鰮粕 [illegible] ◆阪神鰮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短期主要株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